

대한부인종양·콜포스كو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쿠피학회 소식 | 발행일 : 2007년 9월 | 발행인 : 이규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135-010)
TEL : (02) 512-5915 | FAX : (02) 512-5421 | www.ksgoc.or.kr | E-mail : gynecancer@gynecancer.or.kr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대한부인종양·콜포스쿠피학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열하는 태양과 불볕더위로 전국이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가을의 문턱에 와있음을 느낍니다. 저희 학회는 그동안 역대 회장님 및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러한 성과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연말 제가 회장을 맡게 된 이후 힘찬 포부와 함께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일들 중 미진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2007년도 두 번째 소식이 발간을 즈음하여 그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온 성과들을 간략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항도 부산에서 제22차 춘계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최신의 진전된 내용으로 활발한 학술토론과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실시를 앞두고 본 학회의 자궁경부암 정복추진 TFT에서는 2007년 2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7월까지 6차례의 모임을 갖고 4가 백신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1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임상권 고안 개발 포럼을 개최하여 부인종양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등이 모여 열린 토론을 벌였고 팀 내 모임과 포럼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4가 백신 가다실에 대한 임상권고안을 개발하였고 산부인과 의사 및 유관분야 관계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므로 향후 발표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역학 연구 및 임상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 시 본 학회의 개정 임상권고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암 퇴치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은 이후 신설된 수련위원회에서는 부인종양 전임의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장차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해 국내 및 해외 현황과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부인종양분야를 이끌어갈 부인종양 전임의 선생님들께 유익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자리로서 “1차 부인종양 전임의를 위한 workshop”을 9월 7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은 현재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으나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과제 중 하나는 학회의 학문적 성과를 기념할 수 있는 것대인 학회지 ‘부인종양’의 질적 개선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고편수가 괄목할 만큼 증가되었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논문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본 학회지 ‘부인종양’은 현재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이며 올해 처음 등재지 격상을 위한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에 계속 좋은 평가를 유지한다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격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주요 행사로 11월 23일 제13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해외의 저명한 연자가 초빙될 예정인데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학술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선생님들의 참석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인종양학회가 회원님들의 활동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항상 본 학회에 열과 성의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이규완

contents

2007년 9월(통권 제12호)

- 2** 인사말
- 3** 제2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참관기
- 5** 제4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참관기
- 7**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 8** 2007년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13차 심포지엄
- 9** 제22차 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및 규정
- 10** 제38회 SGO 학회 참관기
- 12** 제43차 ASCO 참관기
- 14** Interim AOGIN Meeting 참관기
- 17** 제6차 한일부인종양합동학술대회 참석기
- 19** 엄마와 딸 걷기대회
- 20**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개발 포럼 참관기
- 22** 부인종양 전임의(임상강사, 연구강사) 수련을 위한 Workshop 참석기
- 24** University of Virginia Cancer Center 연수 후기
- 26** M.D. Anderson Cancer Center 연수 후기
- 28** 학회 회무보고·회원동정
- 32** 2007년 주요 학회 일정·편집후기
- 33**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제2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참관기



순천향의대 전 섭

이번 학술대회는 항구의 도시 부산 해운대에서 KGOG 워크숍 다음날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 날 아침에 해운대에 도착, 서둘러서 KGOG 대회장에서 강의를 듣고 늦은 6시나 되어 호텔 방안에 짐을 풀었습니다. 푸른 해운대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난 자연스레 창가에 기대어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에 기대어 '망중한'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학술대회장에 들어서서 포스터를 붙이고 부스를 돌아 보았는데 다른 어떤 학회장보다 입추에 여지가 없이 활기찬 모습이었고 강연장도 여러 선생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규완 회장님의 opening remark와 학술 대상을 수상하

신 국립암센터 박상운 교수님의 Experiences of pretreatment laparoscopic surgical staging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에 대한 발표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세션은 난소암에 대한 세션으로 이재관 교수님이 재발성 난소암의 최신 표준 치료에 대해 잘 정리하여 발표하셨고 김태진 교수님은 미국 유학시에 난소암에서 antiangiogenic and antivascular therapy의 동물 실험을 하신 연구들을 중심으로 발표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여서 굉장히 유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 실험의 좋은 데이터들을 환자에게 적용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들

이 필요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이윤순 교수님의 난소암에서의 복강경 수술의 적용에 대해 교수님의 수술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서 발표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special lecture 세션으로 미국의 NCI에서 중추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Dr. Ted Trimble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적용이 초 읽기에 들어가 있는 HPV 백신에 대해서 발표와 마지막 연재로 '부인암 환자의 치료에서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려면'이라는 주제로 부인암에서 전반적으로 진단 치료 그리고 중요한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 대개 임상



제2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춘계학술대회 단체사진

의사들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부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Dr Trimble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후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서울대 김미경 선생님이 요즘 산부인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해 아르헨티나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시 유방암 수술을 직접 수술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두 방으로 나누어 24편의 다양한 일반 연재가 발표되었고 부스룸에서는 115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장소로 모든 발표와 포스터를 꼼꼼히 챙겨서 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모두 다 알찬 내용들로 선생님들간에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자궁암에 대한 세션으로 강석범 교수님이 자궁내막암에서 유전자 이상에 대한 연재를 허수영 교수님이 비정형 자궁내막 증식증에서 내과적이 치료에 대한 연재를 김성훈 교수님이 자궁암 수술 후 lymphocele의 치료에 대한 연재를 마지막으로 이찬 교수님께서 자궁경부암에서 photodynamic therapy를 포함하는 multimodal therapy로 진행성 혹은 재발성 자궁경부암에서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22차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만찬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종전 학술대회때의 만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번 학술대회의 만찬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

석하시어 더욱 뜻 깊은 만찬이 되었습니다. 만찬 시간에는 우수 논문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 필자도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다음 학회 때는 도전해 볼 것을 속으로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찬의 분위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회원들간에 친목을 다지기에 충분하였고 다음 2007년 11월 23일에 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13차 심포지움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해운대에서 아쉬운 만남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토록 알차고 심도있는 학술 대회를 준비하신 존경하는 이규완 회장님과 학회 집행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술대회 내내 해운대의 바다와 백사장이 유혹하였지만 깨끗하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선생님들과의 만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3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심포지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는
제13차 심포지움을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www.ksgoc.or.kr)를 이용바랍니다.

- 날짜 : 2007년 11월 23일(금)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 강의원고 접수기간 : 11월 3일(토)까지
- 강의슬라이드 접수기간 : 11월 17일(토)까지
- 사전등록기간 : 11월 10일(토)까지

제4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참관기



인하의대 송은섭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저처럼 서울 토박이에게는 좀처럼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냥 해운대라는 아주 좋은 백사장이 있고 또 태종대라는 바위로 구성된 멋진 해안가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요. 그래서 2007년 4월 19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4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소식에 가기 훨씬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18일 오후 외래를 마치고 인하대 식구들과 함께 광명역으로 가서 KTX를 타니 세시간만에 부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성대한(?) 저녁식사 후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학회장에 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학회장에서는 원로 교수님들부터 나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높은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무총장 김재훈 선생님께 수인사를 한 후 일찌감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모임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회원들께서 오셔서 250분이나 되는 대호황을 이루었습

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순범 회장님의 개회사로부터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첫 주제는 서울아산병원 김영탁 교수님께서 좌장을 하시고 신천세브란스병원 김영태 교수님의 자궁경부암환자의 빈혈예방을 위한 다기관 공개 4상 임상시험이었습니다. 성공적인 KGOG1001 등록 종료 후 이어지는 KGOG1002의 연구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기관 공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가슴 벅참을 느꼈고 김 교수님의 깔끔하게 다듬어진 발표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어 동서신의학병원 이종민 교수님의 KGOG 1004 진행된 경부암의 강화요법 발표에서는 연구 기획단계의 연구자의 고심을 느끼게 하면서도 교수님만의 독심 있는 추진력을 미련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국립암센터의 방사선종양학과 김주영 선생님께서 G219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KGOG가 한국에서 만의 임상연구가 아닌 국제 연구사회의 일원으

로서 당당히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KGOG가 다양한 연구자로 이루어진 복합적 연구단체로서의 일면을 보이는 것 같아 흐뭇하였습니다.

오전 두 번째 주제는 자궁내막암에 대한 주제로서 아주대학교병원 유희석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발표는 사무총장인 영동세브란스병원 김재훈 교수님의 고위험 자궁내막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2상 임상시험으로 본 과제의 주연구자로서의 뿌듯한 마음과 함께 빨리 환자를 등록시켜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서울아산병원 김종혁 교수님으로 GOG209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KGOG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협동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전 세 번째 주제는 난소암에 대한 연구로서 삼성서울병원 김병기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첫 발표자인 김승철교수님의 KGOG3007인 난소암 환자의 빈혈치료에 대한 연구인데 환자등록이 안 된다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아산병원 김용만 교수님께서 KGOG 3008 조직배양 항암제감수성검사를 이용한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어 김병기 선생님께서 좌장이면서도 GOG218을 발표하셨고 마지막으로 고대구로병원의 김인선 교수님께서 KGOG 3003를 수행하시면서 병리의로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면서 낙엽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GSK Luncheon Symposium은 경북대병원 조영래 교수님이 좌장을 하시고 미국 Georgetown 의과대학의 Warner K. Huh 교수가 자궁경부암에서의 Hycamtin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해주었습니다. 한국계 미



학회장에서 이종민, 필자, 이낙우(좌측부터)와 함께



제4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단체사진

국인이 미국의 우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한국에 발표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오후는 심포지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주제는 강남성모병원 안용식 교수님께서 좌장을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김재원 교수님께서 국제 공동 임상연구의 현황:GCIG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조만간 GCIG의 회원이 되어 국제 임상시험의 PI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항생항암의약품팀의 박찬원 팀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반면, KFDA에서는 피시험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므로 그 분의 말씀은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병원의 강순범 교수님께서 좌장을 하셨습니다. 첫 연자는 미국 NIH/NIC의 Edward L. Trimble의 'Unanswered Questions in Gynecologic Oncology' 강연이 있었습니다. 현재 NCI의 부인암치료 연구의 주도자로서 그의 발표는 향후 연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어 Warner K Huh 교수의 'A

Review of Recent Clinical Trials in Cervical and Endometrial Cancer' 있었 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가장 신선하여 매우 반응이 좋은 토픽이었는데 국립암센터 남병호 박사님의 통계강의였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한양대학교병원 김경태 교수님의 말씀처럼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배우면 잊어버리고 알 것 같으면 모르게 되는 분야가 바로 통계였습니다. 이번만은 잘 알아듣고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하려고 필기까지 해가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번만은 사

상누각이 되지 않았으면 하면서.....

드디어 다섯 시가 되었고 오늘의 스케줄이 끝났습니다. 인하대 식구들은 즉시 모여 바로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하대병원도 인천에 있기에 연안부 두와 비교하여 맛이 이렇게 다르니 저렇게 다르니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니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끝에 있는 동백섬 아셈회의가 열린 누리마루를 거닐면서 KGOG의 환자등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5월25일에 있을 임상통계기법 워크숍을 기약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인종양 학회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

	교신저자	교신저자 소속	제 목	지원	지원학술대회	마감일
1	강석범	국립암센터	RASSF1A Hypermethylation and Its Inverse Correlation with BRAF and/or KRAS Mutation in MSI-associated Endometrial Cancer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	김문홍	원자력의학원	초기 자궁경부암 근치적자궁적출술후 고위험 환자군에서 3주 간격 시스플라틴(cisplatin)을 사용한 보조적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학술대상 지원	20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3	박정열	국립암센터	Risk factors for persistence or recurrence of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fter conization of cervix	우수논문상(수상)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4	배석년	가톨릭의대	Antiproliferative and Apoptotic Effects of Zinc-Citrate Compound (CIZAR [®]) on Human Epithelial Ovarian Cancer Cell Line, OVCAR-3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5	안응식	가톨릭의대	Multiplexed liquid assay system profiling for early detection of ovarian cancer	학술대상 지원	20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6	안응식	가톨릭의대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 expression of genes in cervical carcinogenesis by whole genome CGH Array	학술대상 지원	20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7	안응식	가톨릭의대	Luminex system application for early detection and recurrent ovarian cancer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8	유희석	아주의대	Syndecan-1 and its Functions in the Human Endometrial Cancer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9	이규완	고려의대	Protein expression patterns of cervical cancers characterized by proteomic analysis	학술대상 지원	20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0	이기은	인하의대	Dose lymphovascular space invasion (LVSI) correlates significantly with the risk of nodal metastasis in women with early stage cervical cancer?: LVSI in stage IA cervical cancer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1	이기현	관동의대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abnormal PAP Smears in Endometrial carcinoma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2	이선경	경희의대	Role of 5'-CpG Island Hypermethylation of FHIT Gene in Korean Cervical Carcinomas	학술대상 지원	20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3	이윤순	경북의대	Laparoscopic Transperitoneal Infrarenal Paraaortic Lymphadenectomy in Patients with Gynecologic malignancies	학술대상 지원	20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4	이준모	가톨릭의대	The Immunomodulatory effect of "Mistletoe (ABNOBaviscum)" in the treatment of ovarian malignancy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5	이준모	가톨릭의대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M ₁ llerian Inhibiting Substance on Human Ovarian Cancer Cell Lines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6	임채준	한림의대	자궁경부암 환자의 전초림프절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출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7	최중섭	성균관의대	LARVH with LPL/LPAL for Stage IB2 Cervical Cancer	학술대상 지원	21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8	박상윤	국립암센터	Experiences of pretreatment laparoscopic surgical staging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학술대상(수상)	22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19	배덕수	성균관의대	Prognostic value of VEGF, pAKT, and pSTAT3 in bulky cervical carcinoma undergoing neoadjuvant chemotherapy	학술대상 지원	22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0	정대훈	인제의대	Plasma proteomic analysis of cervical cancer patients	우수논문상(수상)	23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1	주원덕	울산의대	The efficacy of extreme drug resistance assay for individualized combin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수상)	24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2	허수영	가톨릭의대	Induction of Cell Cycle Arrest and Apoptosis by the Kinase Inhibitor Flavopiridol in Human Ovarian Cancer Cell Lines	우수논문상(수상)	25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3	김희승	서울의대	Clinical prognostic factors for the improvement of survival after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patients with recurrent or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우수논문상(수상)	26차 학술대회	2008년 4월

2007년도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제13차 심포지엄

■ 날짜 : 2007년 11월 23일(금) ■ 장소 : 서울 아산병원 대강당

08:00-08:50 Registration

08:50-09:00 개회사

회장 이규완

Session I Basic research in gynecologic cancer

김경태, 남주현

09:00-09:25 Genomic profiling of ovarian cancer: new insights into pathobiology

M. Birrer

09:25-09:30 Discussion

강석범(국립암센터)

09:30-09:50 Gene expression profiling for prediction of LN metastasis in cervical cancer

김병기(성균관의대)

09:50-09:55 Discussion

이택상(보라매병원)

09:55-10:20 Genomic profiling of ovarian cancer: prognostic stratification and novel target identification novel

M. Birrer

10:20-10:25 Discussion

김용만(울산의대)

10:25-10:55 Break

Session II Clinical research in gynecologic cancer

윤만수, 배동한

10:55-11:20 Advances in metastatic or recurrent cervical cancer

B. Monk

11:20-11:25 Discussion

김영탁

11:25-11:45 Optimal treatment for high risk histologic types of endometrial cancer

김종혁(울산의대)

11:45-11:50 Discussion

박동춘(가톨릭의대)

11:50-12:15 Anti-vascular therapy in ovarian cancer

B. Monk

12:15-12:20 Discussion

김태진(관동의대)

12:20-12:40 MSD luncheon seminar: how to implement HPV vaccines in practice

좌장: 박종섭

12:40-12:50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다실™)의 임상 권고안

이재관(고려의대)

12:50-13:30 Lunch

Session III Controversies in management of gynecologic cancer

이응수, 서호석

13:30-14:10 The role of aggressive surgery in the management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pro 박상윤(국립암센터)
con 류기성(가톨릭의대)

14:10-14:15 Discussion

차문석(동아의대)

14:15-14:55 Concurrent chemoradiation in early stage endometrial cancer with high-risk factors

pro 김재원(서울의대)
con 장기홍(아주의대)

14:55-15:00 Discussion

전 섭(순천향의대)

15:00-15:40 Surgical staging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pro 이종민(경희의대)
con 고석봉(대구카톨릭)

15:40-15:45 Discussion

박영한(한림의대)

15:45-16:10 Break

Session IV Updates in the management of gynecologic cancer

차순도, 안응식

16:10-16:30 Robotic surgery in gynecologic oncology

김재훈(연세의대)

16:30-16:35 Discussion

이윤순(경북의대)

16:35-16:55 The role of lysophosphatidic acid in ovarian cancer

김관식(전북의대)

16:55-17:00 Discussion

손성경(충남의대)

17:00 정기총회

학술상 규정 안내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이하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이라고 칭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 대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회원으로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자격)

- ① 시상부문은 학술대상 1명, 학술상 1명, 우수논문상은 구연 발표 1명, 포스터 발표 3명으로 한다.
- ② 학술대상의 수상자격은 미게재 논문을 본 학회 공식 학술지(이하 '부인종양')에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에 응함으로써 부여된다.
- ③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부인종양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부여된다. 해당 논문은 '부인종양' 게재 논문을 1편 이상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학술대상 및 학술상은 교신저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
- ⑤ 우수논문상의 수상자격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제제자) 발표함으로써 부여된다. 초록 접수할 때 우수논문상 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 ⑥ 각 상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한하며 종설, 증례는 제외한다.
- ⑦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 ① 학술대상의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②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 ③ 우수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구연 발표가 100만원, 포스터 발표자 각 5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 ①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학술대상은 접수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 ③ 학술상은 지난 1년간 '부인종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 ④ 우수논문상(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구연 및 포스터 발표되는 연제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제를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수상자의 의무)

- ① 학술대상 지원자 및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발표하여야 한다.
- ③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 ① 본 규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③ 3조 3항의 적용은 본 규정이 통과된 이후에 '부인종양'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제22차 학술대회 수상자

학술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22차 학술대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명단입니다.

■ 학술대상

- 수상자 : 국립암센터 박상윤
- 초록 : Experiences of pretreatment laparoscopic surgical staging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Results of a prospective study

■ 우수논문상(구연)

- 수상자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산부인과학교실 정대훈
- 초록 : Plasma proteomic analysis of cervical cancer patients

■ 우수논문상(포스터)

- 수상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원덕
- 초록 : The efficacy of extreme drug resistance assay for individualized combin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epithelial ovarian cancer

■ 우수논문상(포스터)

- 수상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허수영
- 초록 : Induction of cell cycle arrest and apoptosis by the kinase inhibitor flavopiridol in human ovarian cancer cell lines

■ 우수논문상(포스터)

- 수상자 : 서울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 김희승
- 초록 : Clinical prognostic factors for the improvement of survival after secondary cytoreductive surgery in patients with recurrent or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제38회 SGO(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학회 참관기



순천양의대 김미경

지난 3월 3일부터 7일까지 San Diego에서 38회 SGO(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학회가 개최되었다. 부인종양학을 전공한 여러 선생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젊은 의사들에게는 항상 참석하고 싶은 중요한 학회여서 '참석기'를 쓰는 필자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간략하게 소개의 글을 올린다. 개인적으로, 꼬맹이 둘이 집에 버티고 있어서 평소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간혹 그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환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SGO만큼은 반드시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회는 3-7일이지만 이미 2일부터 7개의 postgraduate course가 진행되고 있었다. 필자는 Minimally Invasive Surgery와 Surgical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for Advanced and Recurrent Gynecologic Malignancies를 신청하여 강의와 cadaver 실습을 하였다. 작년에는 없던 broadcasting from lab 시설이 마련되어 좁은 공간에서 비좁고 서야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었다. 유럽의 Laszlo Ungar, Michael Hockel등도 초청되어 procedure중 직접 토론을 하였는데, 미국의 조류와 약간 다른 환자 치료 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Laparoscopy procedure는 국내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자주 접하지 못하는 VATS나 robotic surgery, LEER(Laterally Extended Endopelvic Resection), extensive cytoreduction for ovarian cancer등을 참관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런 practical 한 course 외에도 SPORE(Specialized Programs of Research Excellence) in ovary cancer 등 막강한 자금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translational research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Postgraduate course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집중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긴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의사에게는 비싼 수업료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

본 학회에서는 5개의 Plenary session, 8개의 Focused Plenary session, 그리고 5개의 Sunrise session이 준비되었다. 가장 중요한 Topic을 다루는 첫 번째 Plenary session에서는 Centralization of care for patients with advanced-stage ovarian cancer: A cost-effectiveness analysis라는 주제가 맨 먼저 다루어졌다.

expert center에 환자를 refer 하는 것이 quality에 비해 저렴하다는 결론이지만 expert와 non-expert hospital을 나누는 기준이 cytoreduction %와 IP chemotherapy 사용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었다. 여하간 중요한 abstract로 다루어졌다. 아직까지 난적(難敵)으로 생각되는 ovary cancer의 조기 진단 표지자 개발에 대한 연구가 Yale group에 의해 소개되었다. Leptin, prolactin, ostopontin, IGF-2, MIF, CA-125 6가지를 combination하여 ovary cancer에 대해 sensitivity 97.5%, specificity 99.7%의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연구 대상중 Stage I, II 환자가 전체의 23%에 불과하며 이 subgroup의 sensitivity가 89%로 떨어져 조기 발견이라는 명제(命題)를 놓고 볼 때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하는 SGO에서는 실제로 임상적인 효용성을 내포한 연구들이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는 Serous fallopian tube carcinoma와 serous adenocarcinoma of ovary를 환자별로 matching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한 결과 'stage별로 난소암과 난관암은 예후가 비슷하다'라는 것도 주요 논문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구 design과 96명이라는 환자 숫자로 SGO의 중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에게는 위로 겸 용기를 주는 점이었다. 작년에 SGO에서 LAP2의 중간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생존율이나 장기 합병증에 대한 data가 아직 나오지 않아 많은 임상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Endometrial Cancer(EM)의 Laparoscopic Management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California database내 대상환자 12,743명의 multivariate 분석결과, 1기 EM Ca 환자에서 LAVH군의 생존률이 TAH 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물론 LAP2와 같이 잘 계획된 randomized study가 아니라 후향적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early stage endometrial cancer에서 laparoscopic management가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심증은 얻을 수 있었다. Dicer나 Drosha와 같은 생소한 분야를 다루는 기초연구분야도 중요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MDACC의 Anil K Sood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Small interfering RNA를 nanoparticle에 탑재하여 target에 delivery하는 방법으로 쥐의 난소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는데,

angiogenesis 분야 전반에 걸친 그의 창조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이 그저 놀라기만 하였다.

이외에도 학회 기간 중 Integration of Angiogenesis, 'Adjuvant Therapy for Endometrial Cancer: RT vs. Chemotherapy', 'What is the best therapy for IB2 Cervix Cancer in 2007?'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었으나 아직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그야말로 debate 덩어리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workshop은 Tumor board였다. 필자는 기존의 case 위주의 내용인줄 알고 참석하였으나 금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Title은 'Generation X vx. "The Soon to Be" eX-Generation' 이란 다소 유머러스한 제목이었다. Opening 시 director는 '올해의 tumor board는 tumor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들에 대한 것'이라며 misnomer라고 언급하였다. 곧, 50대 이전과 이후의 세대를 나누어 재미나고 은밀한(?) 설문이 진행되었고 몇몇 참가자들(특히 동양

인)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할 일없이 병원에 남아있으면서 집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동성애자인지?', '자신의 실수로 환자가 죽었던 적이 있는지?' 등등의 설문이 진행되면서 Skip Granai 교수의 시 같은 질문과 narration이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처음엔 세대간의 차이를 가벼운 미소로 즐기며 설문을 쫓아가다가, 점점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생기도록 구성이 되었다. 환자들은 왜 1000마일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떠나오는가? 불확실한 Phase 1 study에 enrollment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계속되면서 장내 여기저기서는 놀랍게도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음악과 화면, 자기 반성적인 narration이 p-value를 따지려고 모여든 차가운 의사들을 감동시킨 것이다. Tumor board는 끝났지만, 다들 일어나 누구에게겐지 모를 뜨거운 박수로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역시, 사람에게 짙은 감동을 주는 것은 칼날 같은 혀보다는 따뜻하고 솔직한 인간미인가 보다.

온라인 논문접수 및 심사 시스템

journal.gynecancer.or.kr



- 학회지 원고모집 -

1년에 4회(3, 6, 9, 12월)에 걸쳐 학회 공식잡지인 '부인종양'을 발간하고 있는바 원고를 항상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원고의 종류 : 증설, 원저, 증례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에 요구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제출 논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 본 학회 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입니다.
- 본 학회 학회지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제18차 평가회 평가를 거쳐 KoreaMed (www.koreamed.org) 및 KoMCI (www.komci.org)에 등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1997년 논문부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43차 ASCO 참관기



한림의대 권용일

지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제43회 미국 임상 암학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암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약 20,000명의 의사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시카고 McCormick Place에서 학회가 진행되었다. 학회 하루 전에 출발을 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에서 9월 중에 도입하기로 한 수술용 *da Vinci system* 관련 위원회가 금요일에 열려 하루 늦게 출발하였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명지대병원 김재욱 원장님과 서울대 김재원 선생님이 먼저 와계셨다. 비행시간에 임박하여 도착하여 면세점에 들릴 시간이 없이 바로 탑승을 하였는데, 다른 대학 교수님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미리 출발하여서인지 학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많아 보이지 않았다. 시카고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으로 방문 때마다 거대한 미시간 호수와 잘 정리된 깨끗한 수많은 빌딩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지만 거대한 크기의 많은 호텔들이 내부는 그리 청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이 번에도 호텔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인지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두 배 내지 세배의 가격에 숙소를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약 15시간의 비행 후 오전 11시에 시카고 오키어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비가와서인지 약간 눅눅한 날씨였다. 요즘은 이동통신의 기술 및 서비스가 발달하여 별도의 수속 없이 현지에서 자동로밍 서비스가 되어 다른 선생님들에게 쉽게 연락이 가능하였다. 마중 나온 GSK의 김상훈 대리, 최원석 탐장과 함께 김재욱 원장님을 모시고 숙소인 아말피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주말 오전이라서 인지 교통

은 원활하였다. 호텔에 도착하니 전날 도착한 보라매병원 이택상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하게 샤워를 한 후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가 점심을 먹고 셔틀버스를 타고 학회장으로 이동하였다. 서울대 이효표 교수님, 계명대 조치흠 교수님, 현재 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에 유학 중인 아주대 이정필 교수님, 연세대 김재훈 교수님 등을 만나 강의를 듣고 포스터를 관람하였다. NCI에서 온 Michael Birrer 등은 Affymetrix whole-genome microarray 를 이용하여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항암치료의 반응성에 있어 relevant molecular targets 을 찾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에서 P. Sabbatini, C.A. Aghajanian 등은 2-year progression-free survival rate가 19-30%인 high grade uterine leiomyosarcoma (HGULMS) 환자에서 gemcitabine과 docetaxel(GD)을 이용한 2상 시험을 통해 40%까지 늘린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KGOG에서도 이러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재발성 전이성 leiomyosarcoma 환자에서 proapoptotic protein E2F-1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ARQ501을 이용한 2상 임상시험 결과도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바빴던 스케줄을 뒤로한 채 산부인과 선생님들과 일부 내과 선생님들이 모여 한식집 해운대 갈비로 출발했다. 이효표 교수님, 김재욱 원장님, 김경태 교수님, 안웅식 교수님, 조치흠 교수님 등과 함께 요즘 한미 FTA로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산 갈비를 시식하였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수입이 된다면 이러한 상등급의 소고기를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날은 오전에 Translational oral session이 진행되었다. 난소암 분야에서 기대되는 bevacizumab 관련 강의를 대장암, 폐암, 췌장암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Bevacizumab은 Antiangiogenic effects를 나타내며 VEGF 기능을 억제하고 Sp1의 기능을 증가시켜 downstream target genes 의 overexpression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는데, LA의 UCS/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에서는 Irinotecan에 저항성을 갖는 colorectal cancer 에서 bevacizumab을 사용하여 angiogenic pathway (VEGF, IL-8, TGF-β), EGFR pathway(EGFR, COX-2, Cyclin D1, E-Cadherin, FCGR2A, 3A), DNA repair pathway (ERCC1, XRCC1, XPD), drug metabolism pathway (GSTP1, UGT1A1)



ASCO 학회장에서



ASCO 학회장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뉴욕 양키즈 야구경기 관람 중

등의 발현양상을 임상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하였다. Germline polymorphism이 임상결과에 대한 molecular marker로서 의미가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산부인과 영역에서의 3상 임상시험으로 T. Hogberg 등은 early-stage high-risk endometrial cancer 에서 Radiation (RT)와 RT+CT (Chemotherapy)에 대한 3상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는데, 327명의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누어 3.5년간 추적 관찰하여 RT+CT 군이 RT 단독 치료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P.F. Conte 등은 6차례 platinum-paclitaxel chemotherapy를 하여 CR을 보인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 있어 6 cycle의 paclitaxel chemotherapy를 3주 간격으로 추가 한 경우와 그냥 관찰한 군에서 PFS와 OS를 비교하였는데 차이가 없었던 결과를 발표하였다. Education session에서 Targeting Human Papillomavirus for Cancer Prevention and Therapy의 주제로 Bradley Monk, Maura Gillison, Samir N. Khleif 등이 HPV 감염의 예방에 있어 vaccine의 역할,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치료에 있어 HPV를 targeting 하는 배경, non-gynecologic cancer에 있어 HPV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미 MSD의 4가 백신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73개국에서 허가가 남은 상태이고, GSK의 2가 백신 역시 금년 호주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로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가을 4가 백신을 우선 도입할 계획에 있으니 관심을 끄는 강연이었다. 셋째 날 오전에도 molecular target therapy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강연이 있었다. Primary colorectal cancer 와 liver metastasis 관련하여 TGF- β receptor homologue의 발현과 target therapy로서의 의의에 대한 강연이 흥미로웠으며, 오후부터 GCIG meeting이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있어 KGOG 구성원(김경태, 안웅식, 김재원, 이종민, 이택상 교수님 등)을 중심으로 각각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분야로 나누어 observer로 참석하였다. 저녁시간이 되어 여러 내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John Hancock building의 sky lounge 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미시간 호수의 정경이 그만이었다. 김재욱 원장님, 이택상 선생님과 내일 오전 귀국 예정인지

라 야구광이신 두 분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7시경 셋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구장인 U.S. Cellular Field로 이동하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즈의 야구경기를 관람하였다. 조금 늦어 4회부터 관람하였는데 운이 좋게도 들어서자마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투런 홈런을 볼 수 있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1906, 1917, 2005년 3번에 걸쳐 월드시리즈 챔피언을 지냈던 강팀으로 이날 뉴욕 양키즈를 상대로 6대 4 승리를 거두었다. 뉴욕 양키즈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분발로 9회말 2점차 까지 점수를 좁혔으나 결국 후속타의 불발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에게 1승을 넘겨주고 말았다. 호텔로 돌아와 김재원, 이택상 선생님과 시카고 지역의 전설적인 야구 해설가로 유명하였던 HARRY CARAY'S bar로 가서 간단히 MARTINIS를 즐기며 3일간의 학회를 정리하였다. 미국의 암학회는 실험실 연구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과 임상 연구결과를 주로 발표하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암세포의 성장분열을 억제하는 성장인자 수용체 차단제, 혈관생성저해제 등 암세포의 분자생물학적 targets를 공격하는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암세포의 분자생물학적 표적뿐만 아니라 genomics, proteomics, metabolomics 등과 같은 mass array 방법을 통해 다양한 진단 및 치료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짧은 여정으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ASCO 학회 자체의 유익한 내용들을 모두 소화할 수는 없었지만 산부인과와 관련된 2상, 3상 연구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이와 관련하여 쏟아져 나올 약제들을 생각하니 안전성이나 치료효과 면에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양한 약제에 대해 조금은 혼동스러워하기도 한다. 6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귀국 비행기 편이 예약되어 있어서 오전 9시경 check out을 하고 오후에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짧은 기간 뻑뻑했던 일정을 뒤로한 채 오후에 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한 후 대한항공 편으로 6월 6일 오후 5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짧았지만 의미 있었던 ASCO 학회를 마감하였다.

Interim AOGIN (Asia Oceania Research Organization on Genital Infections & Neoplasia) Meeting **참관기**



가톨릭의대 박종섭



2007년 5월 1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Interim AOGIN meeting이 열렸다. AOGIN (Asia Oceania research organization on Genital Infection & Neoplasia)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태평양 지역 여성의 생식기 감염과 종양, 특히 HPV 감염을 줄이고자 임상 의사, 과학자, 건강 관련 연구자들이 협력하기 위해 설립된 학회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에 대한 새로운 견해”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약 250명 임상 의사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최근 GSK, MSD 제약에서 개발하여 상품화시킨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임상 실험에서 감염과 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으로 전세계 여성중 한 명이 2분마다 사망하고 있으며 2번째로 호발하는 암이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자궁경부암은 다른 형태의 암보다 더 많은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이 두드러지지만, 한국에서는 10만 명당 17명 정도에서 발생하며, 호주와 일본에서는 10만 명당 자궁경부암 발생이 각각 6.9명, 8명으로 낮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에 의한 효과라고 설명될 수 있다. HPV 감염은 성인 여성의 50%가 평생 한번쯤 바이러스 감염을 경험할 만큼 매우 흔한 감염인데, 자궁경부암은 주로 고위험군 HPV에 의해 발생을 하며 HPV 감염 후 수년에서 십년이 지나서야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게 되며, 드물게 일부에서 1-2년 내에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므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AOGI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궁경부암 발생의 대처 방안,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HPV 백신의 접종 확대,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조기에 검진이 안되고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이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AOGIN의 역할은 시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

다. 차기 AOGIN 회장으로 가톨릭 의대 산부인과 박종섭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수행하며, 울산의대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가 사무 총장으로서 차기 서울 AOGIN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2007년 5월 11일에 있었던 AOGIN interim 모임에서는 연세대 김영태 교수가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HPV 감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였고, 홍콩의 Queen Mary 병원의 Hextan Ngan 교수는 자궁 경부암 선별검사로서 HPV 검사의 유용성을 언급한 후 후진 국가에서의 체계적인 선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호주 Royal Women’s Hospital의 Jeffrey Tan 박사는 자궁 경부 이상 소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뒤, 벨기에 Henri Deckx 박사가 ASO4 면역 증강 물질에 의한 GSK 백신의 우수한 면역성과 유사한 구조의 HPV 종류에도 나타나는 교차 반응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GSK는 Cervarix라는 HPV 16, 18번에 대한 예방 백신을 출시할 계획인데 GSK는 2007년 5월에 호주에서 10-45세 여성에 대한 접종 승인을 얻었고 ASO4라는 면역 증강 물질을 사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오후 강의는 Gregg Sylvester 박사가 Merck 4가 백신이 자궁 경부 병변 예방과 함께 콘딜로마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설명해주었다. Merck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국 이상에서 HPV 6, 11, 16, 18번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Gardasil 백신을 시판하였으며, 외국의 경우 9-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접종 프로그



AOGIN 기념 촬영

램을 실시중이다. 두 회사의 백신은 접종 후 5년까지 면역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면역 효과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 연구중이다. 호주의 Suzanne Garland 교수는 16개국 16-24세 545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Merck 4가 백신에 대한 3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HPV 관련 생식기 병변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예방 백신의 임상적 이슈 및 백신 권고안에 대한 강의 시간이었는데 싱가포르 KK Women's Hospital의 Eng Hseon Tay 박사는 각 나라에서 진행 중인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 권고안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이후의 패널 토의시간에는 각국의 임상 의사들이 HPV 백신 사용에 임상적인 효용성, 부작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08년 5월 29일- 5월 31일에 AOGIN 학회가 서울 워커히 호텔에 서 개최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aogin2008seoul.com이다. 6.25에 참전한 월트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워터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워커히 호텔은 외국인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아차산과 한강을 끼고 있어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호텔내 잘 갖추어진 시설들은 AOGIN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평가된다. 2008년 AOGIN 학회를 위하여 개최국인 한국에서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아래에는 조직 위원회 명단과 사진이 있으며, 대한 산부인과 학회, 대한 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의 후원을 받을 예정이다.

■ AOGIN 2008 준비 위원회 명단

위원회	위원	소속
조직위원장	박종섭 교수	가톨릭의대
사무총장	김영탁 교수	울산의대
자문위원장	김승조 교수	포천중문의대
감사	한세준 교수	조선의대
감사	차순도 교수	계명대의대
학술위원장	유희석 교수	아주의대
재정위원장	배덕수 교수	성균관의대
출판위원장	박충학 교수	단국대의대
진행위원장	김승철 교수	이화의대
기획위원장	송용상 교수	서울의대
홍보위원장	김영태 교수	연세의대
간사	김용만 교수	울산의대
간사	허수영 교수	가톨릭의대



조직위원회

Interim AOGIN Meeting

- May 11th, 2007,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Korea
- Moderator: Young-Tak Kim

10:00–10:05	Welcome Remark	Jong-Sup Park
10:05–10:10	Presidential Address	Suzzane Garland
10:10–10:20	AOGIN Introduction	Jeffrey Tang
10:20–10:40	Burden of Cervical Cancer and HPV Infection in Korea	Hae-Rim Shin (Korea)
10:40–10:50	Discussion	
10:50–11:10		MSD invited speaker TBD
11:10–11:20	Discussion	
11:20–11:40	Widening the Benefit : A Quadrivalent HPV Vaccine and Women Health	Gregg Sylvester
11:40–11:50	Discussion	
12:00–13:00	<i>Luncheon Symposium</i> : Making the difference – GSK's Innovative solution to protect from Cervical Cancer	
13:00–13:20	Understanding Cross Protection of HPV vaccine	Margaret Stanley (UK)
13:20–13:30	Discussion	
13:30–13:50	Phase III Trials of HPV vaccine	Suzzane Garland (Australia)
13:50–14:00	Discussion	
14:00–14:20		1) invited or 2) Korean TBD
14:20–14:30	Discussion	
14:30–14:50	Coffee Break	
14:50–15:10	Advisory Recommendations for the HPV Vaccines	Eng. Hseon Tay (Singapore)
15:10–15:20	Discussion	
15:20–15:50	Panel Discussion	All Speakers
15:50–16:00	Closing	Young-Tak Kim

제6차 한일부인종양합동학술대회 참석기



이화여대 김승철

2007년 8월 15일, 한국에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 잠 못 이루던 밤이 계속되던 시기에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 부인종양연구회 합동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침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경축일인 광복절이었기에 한국의 대표로 일본과 대결하기 위하여 출정하는 스포츠 선수와 같은 야릇한 흥분감마저 들었다.

인천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불과 3시간 정도의 그리 길지 않은 비행시간 만에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착륙하였다. 나중에 일본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일본의 남쪽 규슈에서 온 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긴 여행 후 삿포로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출발 전 알아 본 여행정보에서 삿포로의 8월 평균 기온이 섭씨 21

도 정도라는 말에, 찜통 같은 서울의 더위를 피해 삿포로로 미팅을 참석하러 가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나 하는 기대 속에서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비행기 문 밖으로 연결된 가도를 통해 공항으로 빠져 나오면서, 기상 이변으로 32도까지 치솟은 삿포로의 더운 날씨에 실망을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착한 날을 제외하고는 귀국하는 날까지 삿포로의 날씨는 우리를 도와 합동학술대회 중 근사한 피서를 겸할 수 있었다.

도착 첫날은 삿포로 근처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초대되어, 회사에서 제공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대체의학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더 호기심이 갔다. 그러나 잘 계획된 임상시험을 통한 효과를 입증한 데이터를 아직 갖추지 못한 실정이기에, 앞으로 이



제6차 한일부인종양합동학술대회 단체사진

회사가 연구비를 제공하여 한국부인종양연구회(KGOG)를 통한 임상연구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에는 KGOG 단합 골프대회가 개최되어 서울삼성병원의 배덕수 교수님께서 우승 트로피를 안는 영광을 차지하셨다. 언제 어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선선한 날씨는 골프 대회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저녁에는 일본부인종양연구회(JGOG) 측에서 제공한 리셉션 파티에 참석하여 양국의 참석 교수의 소개인사 및 2002년 IGCS 미팅 중에 태동하게 된 한일부인종양연구회 합동학술대회의 6년간의 짧은 역사에 대하여 일본 오치아이 교수의 회고담이 있었다. 또한 삿포로 한국영사관의 영사께서도 참석하시어 환영 인사로 자리를 빛내주셨다.

2007년 8월 17일, 셋째 날에는 삿포로 홋카이도 대학의 conference hall에서 제6차 한일 부인종양 합동학술대회가 아침 8시 등록을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강순범 KGOG 회장님과 이규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님, 그리고 김승조 교수님, 김재욱 교수님, 목정은 교수님, 남궁성은 교수님, 김경태 교수님, 남주현 교수님이 일본 교수들과 좌장을 같이 맡아 진행해 주셨으며, 서호석 교수님, 배덕수 교수님, 박상윤 선생님, 유희석 교수님, 차순도 교수님, 김병기 교수님, 이종민 교수님, 그리고 제가 연자로 발표를 하였다. 일본 측에서도 JGOG 부회장이신 오치아이 교수님을 위시하여 신슈대학의 고니시교수, 게이오대학의 후지교수와 아오키교수, 구루메대학의 가무라교수와 우시지마교수, 홋카이도 대학의 사쿠라기 교수, 지케이대학의 고바야시교수, 후지타보건대학의 우다가와교수, 류큐대학의 도이타교수, 와카야마대학의 우메사키교수, 도쿄대학의 후가사와교수, 추쿠바대학의 요시카와교수, 고오베국립의료원의 다케우치교수 등이 일본 전역으로부터 참석하여 한일합동학술대회는 더욱 알차게 되었다.

합동학술대회 오전에는 “임신 중 부인암의 치료”와 “부인암 환자에서의 수태능력 보존 치료”에 관한 심포지엄이 양국 각 1명씩 강연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서호석 교수님의 “임신 중 자궁경부암과 이형성증”에 관한 강연이 있었고, 일본 측에서는 “임신 중 자궁경부원추생검”에 관한 강연 후 양국의 질문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배덕수 교수님은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수태보존치료”를 강의하시고 수술 비디오와 한국의 데이터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유익한 강연이 되었으며, 한국의 부인암 치료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측에서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수태보존치료”에 관한 강연이 있었는데, KGOG에서도 Mirena IUD를 이용한 이와 같은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던 터이라 강순범 KGOG 회장님의 이에 대한 부연 코멘트가 있었다. 일본 측의 이 연구 결과는 JCO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실렸기에 부럽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발표 내용 논문이 JCO에 발표된 것을 보며, KGOG도

조만간에 세계 유수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았다. 이미 다수의 KGOG 임상연구 관련 논문들이 이미 SCI 논문에 발표되었거나 심사 중인 것도, 짧은 역사의 KGOG의 훌륭한 위상이라 생각해 본다.

오후 전반 session에서는 양국의 “자궁경부암의 수술적 치료”의 치료지침(guideline) 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작년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주관으로 거의 1년의 작업을 통하여 작성해 낸 치료지침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한 모든 일본 교수에게 우리의 치료지침 책자를 배포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가이드라인에 큰 차이는 없겠으나,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치료지침이 학회주관으로 완성되고 공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기념비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의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작업일정으로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다학제 교수(해부병리학, 치료방사선학, 예방의학, 통계학, 내과종양학 등)를 총 망라하여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일본 측에서도 내심 감탄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속사정 상, 이와 같이 다학제 교수를 한데 모아 공동 작업으로 치료지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후문으로 들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 KGOG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기에 앞으로 일본보다 더 좋은 치료지침으로 계속 보완되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후반 session에서는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일본 2개, 한국 3개)의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한일 간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개발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의견에 함께 뜻을 같이 하였다. 이미 KGOG는 JGOG와 GCIG와 함께 난소암의 투명세포암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준비하여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합동학술대회가 끝난 저녁에는 일본 측의 주최로 호텔 일본전통 음식점에서 일본교수들도 정말 고급이라고 감탄하던 가이세키 요리와 유명한 삿포로 맥주와 그리고 삿포로 명물 사케를 즐길 수 있는 망중한을 일본교수들과 함께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 홋카이도 의과대학의 주임교수님께서도 친히 방문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일 양국의 모든 교수들은 아쉬움 속에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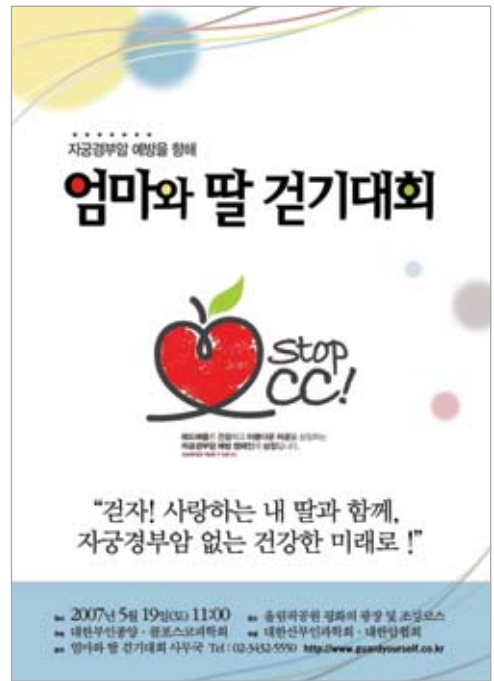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바로 지금이 KGOG가 제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모든 회원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이후로도 일주일이 넘게 계속 되던 한국의 열대야는 나로 하여금 삿포로를 더욱 그리게 하였다.

.....
자궁경부암 예방을 향해

엄마와 딸 걷기대회

2007년 5월 19일(토)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및 조깅코스에서 본 학회 주관으로 MSD 후원하에 엄마와 딸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여 명이 참가하여 걷기대회 및 공연, 의료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개발 포럼 참관기



선병원 송승훈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개발 포럼이 대한부인종양 콜포스피학회 주최로 2007년 6월 11일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부인종양 학회 이규완 회장의 인사말씀과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총 102분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주제가 산부인과 영역에서 초미의 관심인 자궁경부암 백신인지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연세대 김영태 교수님이 '한국 여성에서 HPV 감염 및 자궁경부암 발생 현황'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한국 여성에서의 HPV 감염률은 검사집단의 성격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15%로 추정되며, 자궁경부암 발생 현황은 상피내암을 제외시킨 자궁경부암은 여성 악성종양 중 5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으로 정기적인 암검진으로 인하여 침윤성 암으로 진행되기 전단계인 자궁경부 상피내이형성증이나 상피내암에서 조기 발견하여 치료받아 암으로의 진행을 막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톨릭대 김찬주 교수님은 '한국 젊은 여성의 성생활 양상'에서 국내 여성들의 성생활 양상은 평균 첫 성경험 연령이 21세이며, 19세에 25%의 여성에서 첫 성경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1차 예방 접종 권고 연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려대 이재관 교수님이 '자궁경부암 백신 현황

과 외국 가이드라인 소개'라는 연제에서 2006년 HPV 예방백신으로 Merck사에서 개발한 Gardasil이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FDA)에서 승인받은 후 이에 대한 예방접종 권고연령으로 일반적으로 3회의 백신 접종은 11-12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9세 이상의 여아에서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종과 지역에 따라 HPV의 종류와 유병률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것보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접종 연령이나 대상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약품본부 바이러스백신팀장 반상자님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평가 시스템'에서 백신이 국민에게 공급되기 위해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 평가 시스템인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장 고운영님은 '자궁경부암 백신 도입에 대비한 과제와 이슈'에서 새로운 예방접종 도입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로 공중보건 우선순위, 질병부담, 백신의 효과, 질과 안정성, 경제적, 재정적 문제 등의 정치적 이슈와 기술적 관점에서 백신 도입이 가능한지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도입할 것인가 또는 다른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새로운 백신의 도입을 연기



부인종양 전임의(임상강사, 연구강사) 수련을 위한 Workshop 참석기



이주의대 장석준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초여름의 장맛비는 습한 기운을 더하고 있었다. ‘늦어도 3시 50분까지는 도착해야 할 텐데...’ 간절한 바람에도 차들로 들어 찬 고속도로는 요지부동이였다.

허겁지겁 차를 세우고 도착한 매리어트 호텔. 한동안 선보러 자주 다녔던 곳이라 익숙한 장소이다. 부리나케 뛰어 3층에 도착하니 시간은 이미 10분 초과. 비 때문인지 도착한 교수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회의는 예정시간보다 40분 늦게 시작하였다.

본 워크숍의 개최는 지난 4월 20일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제 22차 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열렸던 수련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회의에서 각 병원 별로 부인종양분과의 전임의를 뽑아서 수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련 받는 전임의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적절한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지도할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본 워크숍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자들 - 명예회장, 상임이사, 수련위원회 위원 등 - 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이규완 부인종양학회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유희석 수련위원장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워크숍이 개시되었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고려의대 이재관 교수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부인종양 전문의, 부인종양 전임의의 현재 국내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전문의 제도는 전쟁의 포연이 가시지 않았던 1952년부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서류심사만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다가 “꽃감 줄까” 하는 소리에 도망가던 시절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2007년 현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855명(남자 610, 여자 245)으로 서울에 401명, 경기도 1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60%가 넘는 전문의들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양상을 보였다. 부인종양을 주 전공으로 하는 전문의는 224명(남자 200, 여자 24)이었으며, 그 중 임상강사는 31명으로 이들의 적절한 수련과 진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전문의 제도의 도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느꼈다.

연세의대 김재훈 교수님은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한 각 관계 기관들의 입장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대한의학회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 전문의 인증 규정’과 ‘세부 전문의 제도 인증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고, 현재 내과 9개, 소아과 9개, 수부외과의 총 19개 세부 전문분야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



시 의학회에서 인정한 세부 전문의 외에 임의로 정한 세부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해외 전임의 수련 및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세부의 교수님 - 가톨릭의대 허수영, 한림의대 박영한, 보라매병원 이택상 - 이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미 외국에서는 세부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 분과 별로 특성에 맞는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된 나라의 중 일본은 우리 학회에서 세부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느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제도가 없었으나,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4년 7월부터 세부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행 세칙을 정하여 전문의와 수련병원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최적의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경희의대 이종민 교수님은 세부전문의 도입

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본 학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여섯 분 연자의 발표가 끝난 후엔 참석자들 전체가 전임의 수련과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실제 이의 시행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부인종양 전문의! 언젠가는 우리가 표방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분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산부인과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는지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는 본 워크숍이 부인종양 전임의의 수련 표준화와 세부 전문의 도입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세부전문의라는 단어가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미약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인종양 전임의(임상강사, 연구강사) 수련을 위한 Workshop

■ 일시 : 2007년 6월 29일(금) 16:00 ■ 장소 : JW Marriott Seoul Hotel

Agenda	담당 수련위원
국내 현황	
2007년 현재 국내 현황 인원 및 지도전문의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 부인종양전문의, 전임의 현황)	이재관
국내 내과, 외과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조치흠
해외 현황	
일본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허수영
미국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박영한
유럽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이택상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의료지원팀, 의협, 병협)	김재훈
세부 전문의 도입의 제반 문제 ① 기존 부인 종양 전문의 인정 기준 ② 세부 전문의 수련 시스템 ③ 세부 전문의 인정 기준	이종민

연수 후기

<University of Virginia Cancer Center>



포천중문의대 김용민

2006년 1월 7일 아내와 초등학생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행 대한항공에 몸을 실었다. 연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과정이 힘들고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내보면 별것이 아닌 일들이 난생 처음해 보는 일이라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하여 수 개월간의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젠가 또 다시 와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에는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주시고 자동차 구입도 도와주신 같은 병원 선생님께서 한인교회 Van을 가지고 반가이 맞아주셨다. 우선 먹고 살기 위해 워싱턴 근처 한인상점에서 한식을 먹고 각종 식료품을 쇼핑한 후 2시간 가량 차를 달려 버지니아 주립대학이 있는 Charlottesville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도착했다.(캠퍼스 총기난사사건으로 유명한 버지니아공대는 이 도시와 2

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전혀 다른 별개의 대학이다.) 이곳은 1819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세운 대학으로 미국내 주립대학 중에는 손에 꼽히는 곳이라고 했다. 버지니아주는 400년 전인 1607년 영국인들이 최초로 도착한 곳으로 미국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수도였던 Richmond가 Virginia주의 수도로서 아직도 남부군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이 우세한 지역이다.

처음 1달간의 기간이 정착에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우선 아이를 학교 등교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국은 겨울방학이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1월 초까지이므로 학기 중에 도착한 우리는 길도 모르고 영어도 안 되지만 소아과로 보건소로 교육청으로 뛰어다니며 등교시킬 준비를 마무리 하였다. 그 다음은 자동차 구입과 집안살림을 마련하는 일, 은행계좌를 만드는

일, 전화, 인터넷 개설, 사회보장번호 신청, 면허증 따기, 병원과 실험실을 찾아가는 일 등등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다. 시차 적응에는 정신적으로는 약 2주 정도, 육체적으로는 거의 1달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모든 것이 편해서 금방 적응이 되는 것 같은데 언어와 환경이 낯설고 처음 해 보는 외국생활을 위한 적응에는 좀더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할일은 많은데 영어가 서툴고 미국인들이 우리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결국은 그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영어가 잘 들릴 때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다 잊어버린 느낌이다.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산부인과는 교수가 30명이 넘고 전공의는 연차당 5명으로 총 20명이고 fellow는 종양학에만 연차당 1명씩으로 3명이 있었다. 버지니아 주립대 병원 자체는 미국 내 27위 정도이고 부



Cancer Center Director 인 Taylor 교수와 함께



University of Virginia Main Hospital



캐나다 쪽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

인종양학 실험실은 cancer center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요일 산부인과 confernece가 몰려있는 날이나 흥미있는 수술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가서 참관을 하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산부인과 실험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임상의사로서 기초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pipetting과 RT-PCR, agarose gel을 이용한 전기영동 등 연습과제를 받아서 똑같은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외과의사로서 수술을 손에 익히는 기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 번의 반복 끝에 원하는 용량을 어느 정도 정확히 pipetting 하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익숙해지자 gene cloning을 과정을 시작하였다. 실험 중간중간에 학회를 2번 참가하고 아이들 spring break나 summer vacation 여행을 가다 보니 여름이 다 가고 나서야 한 가지 실험이 완성되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실험제목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환자의 샘플을 이용한 실험이 시작 되었다. 추수감사절 무렵에 미국연수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Florida주 Orlando에 Disney World와 Sea World, Universal Studio 등을 여행하고 돌아와 12월이 중순이 되어서야 실험결과를 완성하였다. EVI-1 gene의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에서의 발현을 보는 실험이었다. 마지막 남은 한달 동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시즌을 보내기 위해 집사람 친척들이 살고 있는 Philadelphia와 New

York 등으로 연수 중 마지막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크리스마스시즌에 찾은 Manhattan은 정말 화려하고 전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복잡하였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여행이 되었다.

연수 가보신 분들의 경험담처럼 미국에 도착하여 settle down에 2-3개월, 귀국 준비에 1-2개월 그동안 꿈꿔왔던 가족여행이나 가보고 싶었던 학회 등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1년이란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고 아쉬웠다. 그래서 연수 마지막엔 2-3개월 만이라도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미국연수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항상 가족이 같이 여행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 University of Virginia에는 운동시설이 좋아서 수영장장과 체육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고 18홀 짜리 부설 골프장이 아주 가까이 있어 주말이면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살던 마을도 대규모의 주택단지로서 테니스장과 수영장시설이 잘 갖춰져있어 누구나 여가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미국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에게는 지상낙원이었다. 한인상점이 많은 워싱턴 근교까지는 100마일이나 떨어져 한번 장을 보러가려면 거의 한나절 행사였던 것은 불편한 점이었다.

2006년 3월 말에는 SGO가 열렸던 California의 Palm Springs를 다녀오고 5월초에는 Washinton D.C.에서 열렸던

ACOG를 참관하였는데 백악관 바로 옆 호텔에 묵으면서 미국의 수도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에는 버지니아에서 출발하여 Hershey를 거쳐 나이아가라폭포의 웅장함을 보고 Canada 최대의 도시 Toronto를 거쳐 유럽선을 타고 천섬(Thousand island)을 둘러보고 Montreal을 거쳐 프랑스냄새가 물씬 풍기는 Quebec에 머물게 되었다. 이 곳은 정말 동화속같은 느낌의 도시로 마치 유럽에 온 기분이 들었다. 산 높은 곳에 자리잡은 캐나다-미국국경을 통과하여 Maine 주로 넘어와 유명한 Lobster를 실컷 먹어 보았다. Boston을 둘러본 후 뉴욕의 Long Island에 있는 친척집에 들러서는 오랜만에 먹어보는 김치찌개로 그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씻어지는 느낌이였다.

연수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Lab 식구들, 산부인과 교수들과 나를 초청해준 Taylor 교수와 Lab의 책임자인 Jazaeri 교수, 연수기간 중 동병상련의 처지였던 한국인 의사가족들과 버지니아대학에 연수 온 법조인들, MBA 과정에 온 한국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마지막 밤은 워싱턴 근교에서 보낸 뒤 2007년 1월 15일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귀국하여 만나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기회가 되면 꼭 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추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어느 봄날 부인종양학회로부터 원고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미국연수의 기억을 되살릴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토마스 제퍼슨이 설계한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상징건물 Rotunda

연수 후기

<M.D. Anderson Cancer Cente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용범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연수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운 생각과 함께 '나도 언젠가 가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연수 후기를 쓰게 되니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년간의 연수 시절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즐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된다. 200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개원 하면서 합류하여 정신팀이 일하던 중 장기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다. 막상 연수할 곳을 정하려 하니 막막하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어, 결국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나름대로 이곳저곳을 조사하였으나 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아주대병원의 장기홍 선생님의 소개로 Texas주의 Houston시에 있는 University of Texas의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1년간 연수를 하게 되었다. 어려운 부탁인데도 기꺼이 도와주신 장기홍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연수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연수 중에 하려는 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

다.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좋고, 실험실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소의 운영이나 병원의 운영 시스템 등과 같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며,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역시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누구나 조금씩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후회를 남기면서 귀국하게 되는 것 같다.

2005년 11월 14일에 Houston시의 George Bush international 공항에 도착하였다. 한국에서 직항으로 연결되는 비행기가 없어서 Texas의 Dallas에서 미국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하였다. 아내와 세 아이들, 이렇게 5명이 이민기방만 무려 8개나 들고서 출발하였으니 Dallas의 공항에서 짐을 다시 수속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흑인 porter를 만날 수 있었고 이분이 수속까지 대행해 주어서 무사히 Houston까지 올 수 있었다. Houston에서도 출국하기 전의 불안함과는 달리, 그곳에 있는 여러 지인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서 은행계좌와 전화 및 internet, 아이들 학교 입학문제, 차량구입, 여러 가지 가재도구의 구입 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낯선 환경과 서투른 영어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려 했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하였을 터인데, 이렇듯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신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필자가 연수하기로 한 곳은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Department of Pathology에 속하는 Dr. Liu의 Lab이었다. Dr. Liu는 중국의 북경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Pathology를 전공한 후,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Fellowship을 마친 후 Faculty가된 활발한 성격의 중국인이었다. 이 연구실의 가장 큰 project는 ovarian cancer cell modeling을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여러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immunohistochemical staining을 위한 antibody를 test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6명의 실험실 동료 중 3명이 중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병리와 의사이었다.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인 필자는 주로 human ovarian epithelial cell-line에 삽입할



Red Rock Canyon에서 아내와 함께



Canadian Rocky에서 가족과 함께



Gyn Center의 Dr. Ramirez와 함께



실험실 party 중

gene cloning과 retroviral work을 하였다. 너무 방대한 project이기에 틈나는 대로 개인적인 관심사였던 ovarian cancer 환자의 platinum resistance에 관련한 study를 tissue microarray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덕분에 400여명에 달하는 연구대상 환자의 임상기록을 'Clinic Station'이라는 EMR system을 통하여 review 할 수 있었고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다양한 치료방법과 활발한 Clinical trial을 접할 수 있었다.

Gynecologic Oncology Center에서 rotation schedule을 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conference와 meeting에 참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multidisciplinary meeting이 기억에 남는다. 이 meeting은 그 주에 발생한 신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향후의 치료 방침과 적용할 수 있는 clinical study에 대해서 의료진은 물론 clinical study의 monitoring을 담당하는 각 research nurse까지 약 3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meeting이었다. 하나의 clinical study candidate가 있을 때마다 각각의 clinical study를 담당하는 research nurse가 그 자리에서 indication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현재 study slot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을 답하며 결정하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연구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병원 내 ID와 email을 받고 나니 여러 가지 email과 함께 매주 병원장인 Dr. John Mendelsohn의 mail을 받곤 하였는데, 기

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병원 평가에 관한 것으로 Annual survey of "America's best hospitals"에 관한 email이었다. 해마다 각 병원을 평가하여 ranking을 발표하는데 MD Anderson Cancer Center는 New York의 Memorial Sloan-Kettering Hospital에 이어 2위로 발표되었다. 2000년부터 당해인 2006년까지 1위를 무려 4회나 차지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1위와 2위의 총평점이 각각 100점과 99.1점이었던 반면에 3위와 4위에 올랐던 Johns Hopkins Hospital과 Mayo Clinic은 69점과 60.7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병원 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ESL course와 Fellow와 researcher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통계 및 reference manager 등과 같은 program 교육, 최신 연구 기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Writing and Publishing Scientific Articles'라는 교육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필자가 수강한 것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ESL course 중의 하나인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course'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ESL 강좌는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이 강의는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특히 다민족 국가이기에 global culture를 이해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어서 참

으로 유익한 강좌였다는 기억이 남는다.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특히 여행을 많이 가보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비록 1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주위의 지인들과 함께 Texas주 내의 여러 곳에서 Camping과 낚시 등을 즐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5살 막내가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무려(?) 20cm에 달하는 이름도 모를 고기를 낚았던 것이다. 그리고 휴가를 이용해서는 멀리 미 서부와 Canadian Rocky, 그리고 Alaska까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Monument Valley와 Arches National Park의 황량하고도 웅장한 경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과 함께 마치 우리 가족이 외계의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일정이 늦어져서 새벽까지 자동차를 달려서 간신히 예약한 모텔에 도착하여 안도했던 일, 국립공원 안에 예약했던 cabin에 묵으면서 보았던 밤하늘의 그림과 같은 무수한 별들, Idaho 주의 드넓은 건초지대를 지나다가 막내가 알러지로 심한 urticaria가 생겨서 결국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던 일 등이 이제는 모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1년의 연수기간 동안 전혀 새로운 곳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낸 후 기꺼이(?) 우리나라에 돌아온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또한 이렇듯 행복하고 즐거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병원의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회 회무보고

제 2차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 회의

- 일 사: 2007년 4월 3일(화) 오후 6:30
- 장 소: 학회 사무국
- 참석자: 김병기, 김승철, 김영태, 김용만, 김찬주, 박종섭, 이규완, 이낙우, 이재관, 허수영(총 10명)

1. 인사 말씀

- 이규완 회장님
- 박종섭 위원장님

2. 보고사항

- 1)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자료 발표
 - (1) 자궁경부암의 한국인의 역학적 특성 - 김찬주 교수
 - (2) ACIP guideline update- 2007.3 - 김용만 교수
 - (3) 미국 및 호주 가이드라인 요약 발표 - 허수영 교수
 - (4) EU 가이드라인 및 허가 현황 발표 - 김승철 교수

3. 토의사항

- 1) 자궁경부암 백신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된 자료 추가 조사
 - (1) 백신 대상 연령
백신 대상 연령이 미국에서 11-13세로 결정하게 된 근거의 reference 조사 - 이재관 교수
 - (2)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된 epidemiologic study 및 백신의 economic modeling과 관련된 자료 조사 - 김찬주 교수
 - (3) 식약청 자료 - 박종섭 교수
 - (4) CDC 산하 HPV 분과 모임에서 얻어지는 자료 - 박종섭 교수, 김승철 교수, 김용만 교수, 김영태 교수(간사)
 - (5) 가이드라인 내용 가운데 백신 대상 연령을 제외한 자료의 정리 - 김용만 교수

- (6) 일반인 및 의사를 대상으로 한 브로셔 제작
 - MSD, GSK에서 일차 제작한 것을 다시 정리하여 채택하기로 함 - 허수영 교수

모든 자료는 4월 30일 까지 부인종양학회로 보내어 일괄 정리한 후 위원님들에게 다시 메일로 발송하기로 함.

2) 2007년 자궁경부암 관련 사업안 일정

(1) 자궁경부암 백신 가이드라인

6월까지의 공청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일단 MSD의 quadrivalent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GSK의 백신이 호주나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거나 시기가 적절할 경우에는 통합된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음.

(2) 기타 후원 행사

- 5월 19일 : 모녀 걷기 대회 대국민 행사
- 참가자 대상질병 교육 및 자궁경부암에 대한 설문 조사진행(MSD sponsorship)

제 1차 수련위원회

- 일 사: 2007년 4월 20일(금) 12시 50분
- 장 소: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南苑
- 참석자: 김재훈, 박영한, 유희석, 이낙우, 이재관, 이종민, 이택상, 장석준, 조치흠, 허수영(이상 10명)

討議 내용

- 1) 修練 委員會 設立 背景 설명
- 2) 6월 중순까지 각 위원별로 아래 事項을 정리
- 3) 6월 末경 修練委員, 일부 常任理事, 會長團이 참가하는 워크숍 開催
 - 워크숍의 주제는 “婦人腫瘍 專任醫(임상강사, 연구강사) 수련”에 관한 것으로 하되, 그 세부 내용 중에 세부 전문의 관련 사항을 다루도록 함.

Agenda	담당 수련위원	Agenda	담당 수련위원
국내현황		해외 현황	
2007년 현재 국내 현황 인원 및 지도전문의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 부인종양전문의, 전임의 현황)	이재관	일본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허수영
국내 내과, 외과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조치흠	미국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박영한
		유럽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운영 현황	이택상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의협, 병협)	김재훈
		세부 전문의 도입의 제반 문제	이종민
		① 기존 부인종양 전문의 인정 기준	
		② 세부 전문의 수련 시스템	
		③ 세부 전문의 인정 기준	

제 3차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 회의

- 일 시: 2007년 5월 3일(목) 오후 6:30
- 장 소: 이마스시
- 참석자: 김병기, 김영태, 김용만, 김찬주, 박상윤, 박종섭, 이규완, 이낙우, 이재관, 허수영(총 10명)

1. 인사 말씀

- 이규완 회장님
- 박종섭 위원장님

2. 보고사항

- 1) 자궁경부암 백신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된 자료 추가 발표
 - (1)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된 epidemiologic study - 김찬주 교수
 - (2) 백신 대상 연령
백신 대상 연령이 미국에서 11-13세로 결정하게 된 근거의 reference 조사 - 이재관 교수
 - (3) 식약청 및 전문가 회의 자료
- 이재관 교수, 박종섭 교수

3. 토의사항

- 1) 공청회 개최건
 - (1) 공청회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 (2) 공청회 일시
2007년 6월 11일(월) 5:00PM
 - (3) 공청회 프로그램
3개의 session 으로 나누어 진행(연제 제목은 약간 수정될 수 있음)
 - ① 인사말: 이규완 교수
 - ② Session I
좌장: 유희석 교수
연제 1: 한국여성에서 HPV 감염 및 자궁경부암 발생 현황 - 김영태 교수
연제 2: 한국 젊은 여성의 성생활 양상 - 김찬주 교수
 - ③ Session II
좌장: 서경 교수
연제 1: 자궁경부암 백신 현황과 외국가이드라인 소개 - 이재관 교수
연제 2: 식약청의 자궁경부암 백신 임상 허가에 대한 입장 - 식약청 반상자 팀장
연제 3: CDC 의 자궁경부암 백신 임상 허가에 대한 입장 - CDC 고은영 팀장

④ Session III

- 좌장: 박종섭 교수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 권고안 개발을 위한 패넬 토의
패넬 - 좌장, 연자

- 2)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 권고안 가안 작성
다음 (제4차)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 회의 일시인 2007년 5월 29일 가안을 완성하기로 함.
가안은 김병기 교수, 김용만 교수, 이재관 교수, 허수영 교수가 작성하기로 함.

제 4차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 회의

- 일 시: 2007년 5월 31일(목) 오후 6:30
- 장 소: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김병기, 김영태, 김용만, 김찬주, 박종섭, 이규완, 이낙우, 이재관, 허수영(총 9명)

1. 인사 말씀

- 이규완 회장님
- 박종섭 위원장님

2. 토의사항

- 1)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가안 마련

제 5차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 회의

-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오후 6:30
- 장 소: 부인종양학회 사무국
- 참석자: 김병기, 김승철, 김영태, 김용만, 김찬주, 박종섭, 이규완, 이낙우, 이재관(총 9명)

1. 인사 말씀

- 이규완 회장님
- 박종섭 위원장님

2. 토의사항

- 1)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확정
: 이재관 교수가 정리하여 디자인 작업거쳐 발간(8월중 발송예정)하기로 함.
- 2)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data(reference 포함)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로 함.
: 김병기 교수가 계획하여 다음 모임(7월 23일) 때 발표

제 2차 학술위원회

- 일 시: 2007년 7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취영루
- 참석자: 이규완, 김경태, 김승철, 김영탁, 김재원, 김태진, 박태철, 이선경, 이윤순, 이찬, 이낙우 (이상 11명, 가나다순)

1. 2007년 제 1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2007년 제22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날짜: 2007년 4월 20일(금)
장소: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등록인원: 344명(사전등록 318명, 현장등록 26명)
- 2) 제 6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날짜: 2007년 8월 17일(금)
장소: 일본 홋카이도 대학
- 3) 제13차 심포지엄 개최 예정
날짜: 2007년 11월 23일(금)
장소: 서울 아산병원 대강당

3. 논의사항

- 1) 제13차 심포지엄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가안 승인, 연제 및 연자 선정, 제목을 좀더 수정해 회람하기로 함.
지명토론자 및 좌장은 추후 선정해 회람하기로 함.
- 2) 내년 제 23차 춘계학술대회 외국연자 초청의 건
- 김태진 교수가 편지를 보내기로 함.

제 6차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 회의

- 일 시: 2007년 7월 23일(월) 오후 6:30
- 장 소: 이마스시
- 참석자: 김병기, 김영태, 김찬주, 박종섭, 이규완, 이낙우, 이재관, 허수영(총 8명)

1. 인사 말씀

- 이규완 회장님
- 박종섭 위원장님

2. 토의사항

- 1)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디자인 및 편집 확정
: 산부인과학회 회원에게 발송(8월중) 예정
- 2)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한 full manuscript
: 김병기 교수가 contents 및 분담계획을 발표.
부인종양 잡지에 종설형태로 발표하고 별책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

제 2차 수련위원회

- 일 시: 2007년 8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이마스시
- 참석자: 이규완, 유희석, 이낙우, 이종민, 이택상, 장석준, 허수영(이상 7명)

討議 내용

- 1) 현재 산부인과 부인종양 전임의는 약 103명 정도로 파악됨 (중소병원포함).
- 2) 전임의를 위한 workshop은 9월 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 등록비는 20,000원으로 함.
- 3) 각 수련기관 주임교수에게 공문 발송하여 많은 전임의 참여 독려
- 4) HPV 백신에 대한 특강을 luncheon symposium 형식으로 함(GSK, MSD 접촉).
- 5) 좌장 및 연자에게 공문 발송



회원동정

- 임명철(국립암센터), 황인택(을지의대), 구진영(광주기독병원), 최일정(동아의대), 박철민(제주의대), 박종훈(알래스기 념침례병원), 정연경(국립암센터), 신병섭(한마음병원)이선 호(가천의대), 김형일(아름병원), 오영림(고신의대), 김진하 (국립암센터), 유승철(아주의대), 윤호주(숨씨좋은산부인과), 서재걸(포모나여성클리닉), 김성욱(부산성모병원), 김 태성(비너스여성의원) 선생님께서 새로운 학회 회원으로 입회하였습니다.
- 가톨릭의대 산부인과교실 '부인종양분과(분과장 안웅식 교수)'는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산부인과 종양 환자에게 적용할 항암제 프로토콜 기준을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통일된 치료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어느 병원서든지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자궁경부암 정복 전략 TFT 위원장인 박종섭 교수(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는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007년도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사업-이행성 암연구 특별프로그램 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1년에 1억 8천 5백만원씩 향후 9년 동안 총 1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금번 선정된 과제는 "HPV 감염 연관 자궁경부종양 치료 백신 개발"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부하령 박사, Bioleaders (주) 성문희 박사와 공동으로 수행할 연구로서 HPV 발암 단백질을 유산균 표현에 부착시킨 것을 경구 투여하여 전신적 세포 면역과 액체성 면역 반응 이외에도 국소적인 점막 면역을 유도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임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여 국민의 보건 복지 향상과 의료 산업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시흠(계명의대) 교수가 2007 춘계 대한암학회에서 제9회 GSK 학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김승철(이화의대) 교수가 2007년 8월 1일자로 이대목동 병원 의무부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강순범(서울의대) 교수는 2008년도 IGCS 개최를 위한 counsel member로 9월 6일(목) 방콕에서 개최되는 IGCS Promoting committee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준모(강남성모) 교수, 미국 전문의 대상 복막암종증 관련 교과서 공동집필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준모 교수가 최근 미국 Springer사에서 발간된 Peritoneal Carcinomatosis- 'Cytoreduction and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for Peritoneal Carcinomatosis of Ovarian Cancer' 난소암 분야의 chapter를 맡아 집필 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새로운 복막암종증에 대한 교과서로서 생물학적 분자 메커니즘과 조직병리학, 국소 및 전신적인 세포독성요법, 각종 수술법 등을 포함하여 복막암종과 난소암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을 최초로 제공해주고 있다.
복막암종증과 난소암은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서, 이 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병리학적인 실체와 생물학적인 측면, 신기술 개발의 치료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개요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복막암종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의 복잡성에 직면하고 있는 내과 및 외과와 부인과 종양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관련 웹사이트 : www.surgery.ugent.be

☎ 학회사무실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우)135-010
- ◎ 전 화 : 02)512-5915
- ◎ 팩 스 : 02)512-5421
- ◎ E-mail : gynecancer@gynecancer.or.kr
- ◎ Homepage : www.ksgoc.or.kr
www.gynecancer.or.kr

2007년 주요 학회 일정

일 자	학 회 명	장 소	홈페이지
9.21-25	20th AFOG	Tokyo	www.ics-inc.co.jp/aocog2007/
10.27-28	GCIG Fall Meeting	Berlin	ctep.cancer.gov/resources/gcig
10.28-11.1	15th ESGO	Berlin	www.esgo.org
11.3-10	24th Int'l Papillomavirus Conference	Beijing	www.chinamed.com/cn/hpv2007
11.11-14	14차 World Congress on GTD	Fukuoka	www.macc.jp/14isstd/
11.23	13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심포지엄	서울	ksgoc.or.kr

編輯後記

회원 여러분, 아열대성 이상 기후와 찌는 듯한 폭염의 하절기에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셨는지요? 이제는 제법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초추절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학회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서울의대 이효표 교수님과 한양의대 문형 교수님의 정년퇴임(2007. 8. 31)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올리며, 훌륭하신 두 분 교수님의 앞날에 보다 많은 건강과 행복 및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학회는 제11대 이규환 회장님이 취임하신 후 2007년 전반기에도 많은 행사와 발전이 있었는데 “제2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제4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권고안 개발 포럼”, “부인종양 전이의 수련을 위한 워크숍” 등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생식기 감염 및 종양학회(AOGIN) 2008년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차기 AOGIN 회장인 가톨릭의대 박종섭 교수가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고 “Interim AOGIN Meeting”을 열었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최신 지식의 습득과 토의 및 학술발표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온바 이번 소식지에서도 중요한 학회인 “제43회 미국 임상 암학회”와 “제38회 미국 SGO 학회” 학술대회 참관기를 게재하였다. 본 소식지에 원고를 보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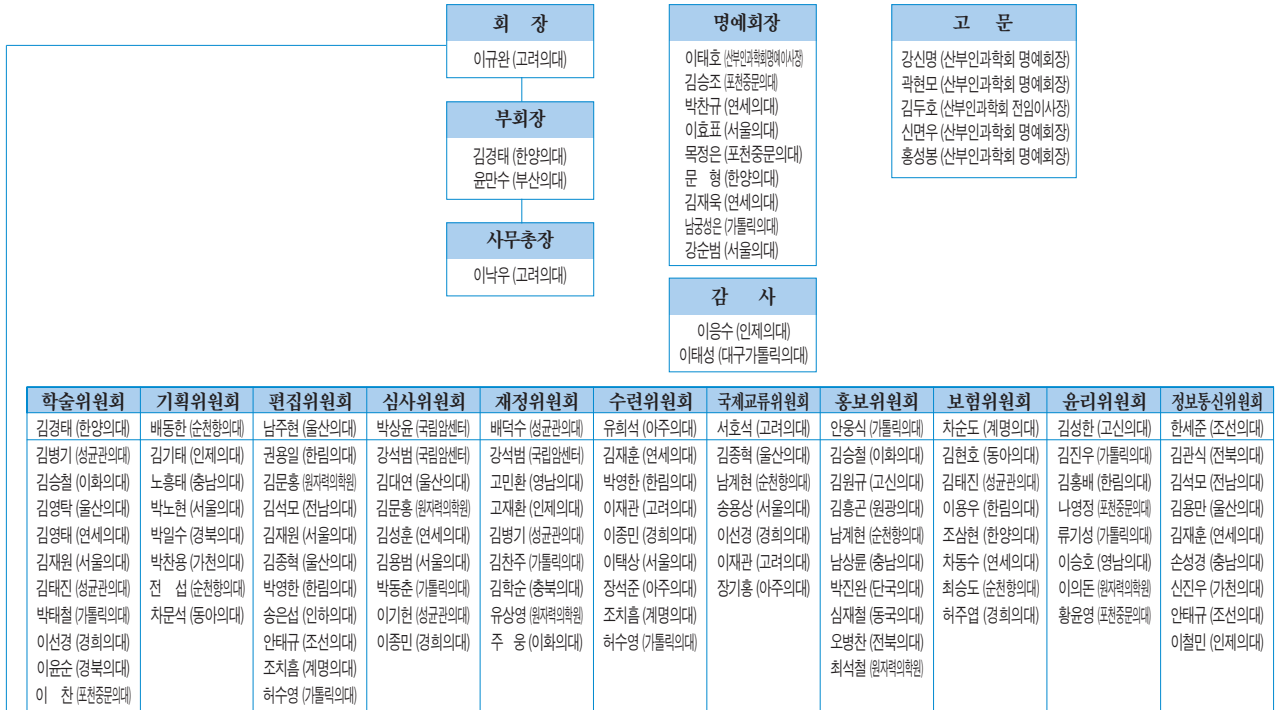
현재 현대의학, 공학 및 과학의 눈부신 발달과 삶의 질적인 향상으로 과거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으나 인간의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집착은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지는 부인종양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암 및 암 전구질환 환자의 정확한 조기진단, 성공적인 일차 치료,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 진료, 재발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 5년 생존율의 향상,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 삶의 질 향상과 죽음으로의 인도 및 부인종양학을 담당하여 암 환자 진료에 임하는 회원에 대한 교육 등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의 제반 업무와 활약상뿐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과 동정 등을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신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소식지 소위원장 박충학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2007년 3월 현재)



- 자궁경부암
장북 전략 TFT**
- 박종섭 (가톨릭의대)
 - 김병기 (성균관의대)
 - 김승철 (이화의대)
 - 김영태 (연세의대)
 - 김용만 (울산의대)
 - 김찬주 (가톨릭의대)
 - 박상윤 (국립암센터)
 - 송웅상 (서울의대)
 - 이원철 (가톨릭의대)
 - 이재관 (고려의대)
 - 조남훈 (연세의대)
 - 조치흠 (계명의대)
 - 허수영 (가톨릭의대)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Guideline Committee)

위 원 장: 김경태 (한양의대)
부위원장: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체간사: 김병기 (성균관의대)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개발팀

자문위원: 최호선, 배덕수
위원: 김영택(팀장), 김찬주(간사), 김승철, 남계현, 김영태, 이종민, 강석범, 김석모

난소암 진료권고안 개발팀

자문위원: 남주현, 송웅상
위원: 김병기(팀장), 이정원(간사), 김용만, 유상영, 조치흠, 허수영, 이재관, 송은섭

자궁내막암 진료권고안 개발팀

자문위원: 서호석, 조영래
위원: 유희석(팀장), 장기홍(간사), 류기성, 김재원, 김재훈, 차문석, 이기현, 김중혁

- 소식지소위원회**

 - 박충혁 (단국의대)
 - 손성경 (충남의대)
 - 신진우 (가천의대)
 - 이철민 (인제의대)

정보소위원회

 - 김수녕 (건국의대)
 - 김석모 (전남의대)
 - 김용만 (울산의대)
 - 김재훈 (연세의대)

이 사				
강순범 (서울의대)	김현호 (동아대의대)	박찬규 (연세의대)	유희석 (이주의대)	이효표 (서울의대)
강재성 (고려의대)	남궁성은 (가톨릭의대)	박찬용 (가천의대)	윤만수 (부산의대)	장윤석 (마리아병원)
구병삼 (서울에이엠의원)	남성륜 (충남의대)	박충학 (단국의대)	이경희 (원지력의학원)	전중수 (성균관의대)
김경태 (한양의대)	남계현 (순천향의대)	배덕수 (성균관의대)	이규완 (고려의대)	조삼현 (한양의대)
김성한 (고신의대)	남주현 (울산의대)	배도환 (중앙의대)	이선경 (경희의대)	조영래 (경북의대)
김수녕 (건국의대)	노홍태 (충남의대)	배동한 (순천향의대)	이승호 (영남의대)	차순도 (계명의대)
김승조 (포천중문의대)	목정은 (포천중문의대)	배석년 (가톨릭의대)	이응수 (인제의대)	최호선 (전남의대)
김승철 (이화의대)	문 형 (한양의대)	서영욱 (부산일신병원)	이이돈 (원지력의학원)	한세준 (조선의대)
김영태 (연세의대)	박상윤 (국립암센터)	서호석 (고려의대)	이준모 (가톨릭의대)	허 민 (중앙의대)
김재욱 (연세의대)	박인서 (성균관의대)	송웅상 (서울의대)	이재호 (성균관의대)	허주엽 (경희의대)
김종덕 (전북의대)	박일수 (경북의대)	심재욱 (성균관의대)	이진용 (을지의대)	황윤영 (포천중문의대)
김학순 (충북의대)	박종섭 (가톨릭의대)	안웅식 (가톨릭의대)	이태성 (대구가톨릭의대)	
김현찬 (인제의대)	박종택 (포천중문의대)	오병찬 (전북의대)	이현영 (청화병원)	

The treatment for the first-relapse **SCLC** & **Ovarian Cancer**



- Hycamtin is more effective in platinum-sensitive patients, compared with platinum-resistant patients¹
- Well-defined side-effect profile²

하이캄틴[®]

(염산토포테칸)

References

1. Bookman MA, Malmstrom H, Boils G, et al. *J Clin Oncol*. 1998;16:3345-52.
2. Hycamtin[®] (topotecan HCl) Prescribing Information.

* SCLC : Small Cell Lung Cancer

하이캄틴 (Topotecan HCl)

- **주성분**
1 바이알 중 염산토포테칸 4.49mg (토포테칸으로서 4mg)
-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
표준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
(차화학요법에 실패한 재발성 소세포폐암의 치료)

- **금기사항**
다음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반응을 보인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선 안된다.
2) 이 약은 임신부, 수유부 또는 심각한 골수 억제 환자에 사용하선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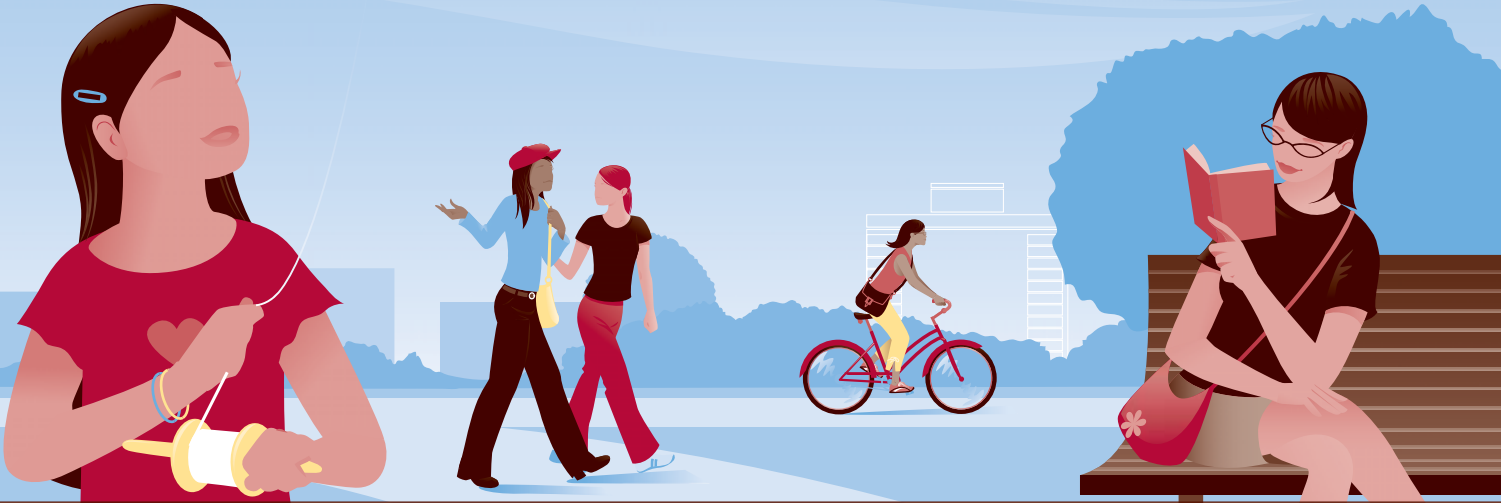
예방은 치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전세계 여성이 2분마다 한 명씩 자궁경부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그녀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성들에게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CERVICAL CANCER
PREVENTION



가다실® 을 알려드립니다



가다실은 HPV 6, 11, 16 및 18형으로 유발되는 다음 질환을 예방하는 유일한 4가 백신입니다.

- ▶ 자궁경부암
- ▶ 외음부 및 질 전암성 병변(precancerous lesions)
- ▶ 자궁경부 이형성증
- ▶ 생식기 사마귀

가다실의 효능·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6, 11, 16 및 18형에 의한 다음 질환의 예방:
 - 자궁경부암
 - 생식기 사마귀(침형콘딜로마)
2.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6, 11,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전암성 병변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
 -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Adenocarcinoma in situ, AIS)
 - 자궁경부 상피내 신생물(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2기 및 3기
 - 외음부 상피내 신생물(Vulvar intraepithelial neoplasia, VIN) 2기 및 3기
 - 질 상피내 신생물(Vaginal intraepithelial neoplasia, VaIN) 2기 및 3기
 - 자궁경부 상피내 신생물(CIN) 1기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피접종자가 면역·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신은 진행 중인 생식기 사마귀;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자궁경부 상피내 신생물(CIN), 외음부 상피내 신생물(VIN), 질 상피내 신생물(VaIN)의 치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9세-26세의 소녀 및 젊은 여성에게 백신을 접종하십시오.

가다실을 접종하시기 전에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ARDASI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erck & Co., Inc., Whitehouse Station, NJ, USA.



한국엠에스디 (주)

Copyright © 2007 Merck & Co., Inc., Whitehouse Station, NJ, USA.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번지 미래에셋생명빌딩 11층

Tel) 02-6363-0114 <http://www.msd-korea.com>



가다실®

[인유두종바이러스 4가
(6, 11, 16, 18형)백신(유전자재조합)]

06-2008-GRD-2007-KR-(MVD-20651207)-2909-J

의약품 분류번호	631 백신류
-------------	------------

전문 의약품
국검의약품

표 2. 이 백신의 임상시험 등록 후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상을 보고한 피험자수의 요약

잠재적 자가면역질환	백신 투여군 (N=11,813)	위약 (N=9,701)
특정 자가면역질환	3 (0.025%)	1 (0.010%)
소아/청소년 관절염	1	0
류마티스성 관절염	2	0
진신 흉반 루푸스	0	1
기타	6 (0.051%)	2 (0.021%)
관절염	5	2
반응성 관절염	1	0

시험 후 유해사례

이 약 시판 후 다음과 같은 유해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유해사례는 불특정 다수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발생빈도 또는 이 백신 접종과의 상관관계는 판정하기 어렵다.

신경계: 어지러움, 실신.
위장관계: 구역, 구토.
면역계: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을 포함하는 과민반응, 기관지경련, 두드러기.

4. 일반적 주의

- 1)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피험자가 면역·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2) 이 백신은 진행 중인 생식이 사마귀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자궁경부 상피내 신생물(CIN), 외음부 상피내 신생물(VIN), 질 상피내 신생물(VaIN)의 치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이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닌 질병은 예방하지 않으며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하지 않는다.
- 4) 다른 주사용 백신과 마찬가지로 백신 투여 후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치료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 5) 면역억제제의 사용, 유전자 결함,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해 면역 반응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반응이 감소될 수 있다(사용상의 주의사항 5. 상호작용 참고).
- 6) HIV-감염자에 대한 이 백신의 안전성, 면역원성 및 유효성은 평가된 바 없다.

5. 상호작용

- 1) 임상 시험 결과 이 백신은 6개월 간격 재조합백신과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단, 각각 다른 부위에 주사할 것).
- 2)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 중 일부가 진통제(11.9%), 소염제(0.5%), 항생제(6.9%) 및 비타민제(4.3%)를 복용하였다. 위 약물의 복용이 이 백신의 유효성, 면역원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 임상 시험에서 이 백신을 투여 받은 16~26세의 여성 중 57.6%가 호르몬성 피임제를 복용하였다. 호르몬성 피임제는 이 백신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4) 임상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중 일부가 흡입(1.7%(n=158)), 국소(0.6%(n=56)) 및 비강(1.0%(n=89)) 면역억제제를 이 백신 접종 전후에 복용하고 있었다. 위 약물들은 이 백신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임상 시험에서 매우 적은 수의 피험자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고 그 면역 억제 반응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5) 이 백신과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병용투여한 자료는 없다. 면역 억제 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대사제, 알킬화제 및 세포독성제의 전신투여)을 받고 있는 경우 백신 접종에 대해 최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4. 일반적 주의 참조).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1) 동물 실험에서 이 백신을 투여 시 수태, 태·배자의 발달, 또는 난란 후 발달에 직접 및 간접 유해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백신을 수태한 랫트에 1회 또는 다회 근육주사했을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6, 11, 16 및 18형에 대한 특이적 항체 반응이 유도되었고, 해당 HPV에 대한 각 항체는 수태 및 수유 중에 태아에게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임부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비교임상시험은 실시된 바 없으며 동물 생성은 시험으로 사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백신접종 중 임신은 가급적 피한다.
- 임상 시험시 여성 피험자들은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정 전 소변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 백신의 3차 접종이 완결되기 전 임신한 여성에게는 임신 상태가 끝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지연하였다. 이러한 비교조율으로 접종시 3회 접종 후 항 HPV 6, 11, 16 및 18형 반응은 0개월, 2개월, 6개월에 3회 접종하는 표준요법에 따라 접종했을 때와 유사하였다(용량·용량·용량 참고).
- 임상 시험 중 2,266명이 백신 투여군: 1,115명, 위약 투여군: 1,151명의 여성이 한 번 이상 임신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백신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 간 임신 시 유해결과와 비율은 유사하였다.
- 추가적인 소집단 분석에서는 이 백신 또는 위약 투여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30일 이후의 임신한 경우를 평가한 결과, 30일 이내에 임신한 경우 이 백신 투여군에서 5건, 위약 투여군에서 0건의 선전성 기형이 관찰된 반면, 30일 이후에 임신한 경우 이 백신 투여군에서 10건, 위약 투여군에서 16건의 선전성 기형이 관찰되었다. 관찰된 기형의 종류는 임신 시점과 무관하게 16~26세의 임신한 여성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의 종류와 동일하였다.
- 따라서 이 백신의 접종이 생성능, 임신 또는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2) 이 백신에 의해 유도된 백신 항원 또는 항체가 수유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다.
- 이 백신은 수유부에 접종할 수 있다. 995명의 수유부 및 임신 시험에서 신도와 수유아동에서의 유해사례 발현은 이 백신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이 동등하였다. 또한 수유부와 비수유부에서 백신에 의한 면역원성을 비교했을 때 동등하였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 9)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평가된 바 없다.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26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이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평가된 바 없다.
- 9) 과량투여
이 백신을 권장량보다 과량으로 투여한 경우 보고된 유해사례 양상은 이 백신의 권장량을 투여했을 때 유해사례 양상과 동등하였다.
-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꺼낸 후 가능한 빨리 투여한다. 냉장고에서 꺼내 25°C 이하 실온에서 3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3) 이 백신은 1회 용량 멸균주사제이다.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료위험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11. 기타

- 1) 작용기전
이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 6, 11, 16 및 18형의 주요 캡시드 단백질(L1)을 이용한 정제 바이러스사입자(VLP)로부터 만들어진 비감염성 재조합 4가 백신이다. 바이러스사입자는 바이러스의 DNA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포를 감염시키거나 생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병을 유발할 수 없다. 비감염성 사입자에서 L1 VLP 백신의 유효성은 지역 면역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여졌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편평 상피세포 자궁경부암 및 그 전구성 병변 CIN 1 및 CIN 2/3 및 자궁경부 상피내 전구성 병변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AIS)을 유발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또한 약 35~50%의 외음부암 및 질암을 유발한다. VIN 2/3 및 VaIN 2/3는 외음부암 및 질암의 최근 단계의 병변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또한 자궁경부 및 질, 외음부 및 외부생식기가 자라지 생기는 생식이 사마귀(침형콘딜로마)를 유발하며 이는 드물게 암으로 진행한다.
- 이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 6, 11, 16, 18형을 대상으로 하는 재조합 백신이며, 이들 유형은 다음의 질병을 유발한다:
- 자궁경부암, AIS, CIN 2/3 및 인유두종바이러스-관련 외음부암 및 질암의 70%
- CIN 1, VIN 1 및 VaIN 1의 35~50%
- 생식이 사마귀의 90%
- 2)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이 백신의 발암성 또는 유전독성에 대해서 평가된 바 없다. 이 백신을 일컷 랫트에게 총 단백질 120mcg의 용량(사람 용량의 약 300배에 해당)을 투여하였을 때 골다공증, 수태능 및 배·태자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포장단위	0.5mL/바이알 × 1, 10
저장방법	밀봉용기, 2~8°C에서 냉장보관, 얼리지 말 것, 차광.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 이 약은 의사 또는 치료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이 약 및 질병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입니다. 사용기한(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변태·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및 약품품 판매업자에 한하여 교환하여 드립니다.

제조원
Merck & Co., Inc., U.S.A.

수입판매원
한국엠에스디(주)
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과 603
전화: (031)499-8748
분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
전화: (02)6363-0114

40060750
작성일자 2007년 6월

GARDASIL®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erck & Co., Inc., Whitehouse Station, NJ, USA.



[인유두종바이러스 4가(6,11,16,18형) 백신(유전자재조합)]

성상
흰색의 불투명한 무균의 현탁액이 들어있는 바이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 바이알(0.5 mL) 중, 주성분: 인유두종바이러스 6형 L1 단백질 (별규) ----- 20µg 인유두종바이러스 11형 L1 단백질 (별규) ----- 40µg 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 L1 단백질 (별규) ----- 40µg 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 L1 단백질 (별규) ----- 20µg 흡착제: 수산화알루미늄비결정인산화인산염(일부미늄오르사) (별규) ----- 225µg 등장화제: 염화나트륨 (USP) ----- 9.56mg 용해보조제: 히스티딘 (EP) ----- 0.78mg 용해보조제: 붕산나트륨 (NF) ----- 35µg 안정제: 폴리소르베이트 80 (NF) ----- 50µg 용제: 주사용수 (USP) ----- 적량

효능·효과

1.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6, 11, 16 및 18형에 의한 다음 질병의 예방:
 - 자궁경부암
 - 생식이 사마귀(침형콘딜로마)
 2.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6, 11, 16, 18형에 의한 다음의 전암성 병변 또는 이형성 병변의 예방:
 -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Adenocarcinoma *in situ*, AIS)
 - 자궁경부 상피내 신생물(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CIN) 2/3 및 3/4
 - 외음부 상피내 신생물(Vulvar intraepithelial neoplasia, VIN) 2/3 및 3/4
 - 질 상피내 신생물(Vaginal intraepithelial neoplasia, VaIN) 2/3 및 3/4
 - 자궁경부 상피내 신생물(CIN) 1/2
- 이 백신은 9~26세의 여성과 9~15세의 남아에게 접종한다.
이 적용은 16~26세 여성에서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 9~15세의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남성에서 유효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용량·용량

1. 백신일정
이 백신은 다음의 접종 일정에 따라 1회 0.5mL씩 3회 근육주사한다.
- 1차 접종: 방문일
- 2차 접종: 1차 접종으로부터 2개월 후
- 3차 접종: 1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 후
피험종자는 가능한 0개월(최초접종일), 2개월, 6개월의 접종 일정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이 백신의 임상 시험에서 1년 이내에 3회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접종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1개월 후, 3차 접종은 2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접종방법
이 백신은 성인의 상근근 또는 대퇴부 전외측 상부에 근육주사한다. 정맥주사해서는 안된다. 피하 및 피내주사에 대해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프리필드시린지는 1회용으로 1명 이상에게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1회 용량 바이알의 경우 개인별로 별도의 멸균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하여 접종한다.
이 백신은 희석 또는 사용시 용해(reconstitution)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공된 그대로 권장용량 전량을 사용한다. 사용 직전 충분히 흔들어 백신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며 이 때의 백신은 백탁의 액체이다. 비강주 투여에는 반드시 투여 전 이물이 나면서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이물이 있거나 변색이 관찰되면 폐기한다.
가다실 프리필드시린지: 주사기 내 전량을 접종한다.
가다실 프리필드인: 보충제, 방부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멸균된 주사기와 주사침을 이용하여 이 백신 0.5mL를 취한 후 즉시 접종하고, 남은 바이알은 폐기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이 백신 또는 이 백신의 성분에 과민한 사람이 이 백신 접종 후 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추가 접종하지 않는다
2.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현재 또는 최근 열성 질환이 있는 자 (중증의 중증도와 병인에 따라 백신접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결정 한다. 일반적으로 미열 및 경증의 상기도 감염은 백신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2) 저혈소판증상이 기타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 (이 백신 근육 주사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3. 이상반응
이 백신은 위약을 (범용일) 2, 6개월에 투여한 5건의 임상 시험(위약 대조 4건에서 이 백신은 위약(범용일) 포함 또는 미포함)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 양상이 유사하였다. 소수의 환자(0.2%)가 위약사례로 인해 시험을 중단하였다. 이들 임상시험 중 1건은 제외한 모든 임상 시험에서 안전성 평가는 이 백신 또는 위약의 주사 후 14일간 작성된 설문보조자료(백신접종보고카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임상시험 등에서 이 백신 투여군은 6.160명(9~26세 여성 5,088명, 9~16세 남성 1,072명, 등록일 기준)이었고 위약 투여군은 4,064명이었다. 이 백신 투여군에서 발현율은 1.0% 이상이고 위약 투여군에 비해 높은 발현율을 나타낸 백신관련 유해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백신관련 주사부위 반응 및 전신 유해사례*

유해사례 (접종 후 1~5일간)	이 백신 투여군 (N=6,160) %	알루미늄 포함 위약군 (N=3,470) %	식염수 위약군 (N=594) %
주사부위 통증	81.3	75.4	45.4
홍창	24.2	15.8	7.7
흉반	23.6	18.4	13.2
출혈	3.2	3.9	2.6
가려움증	2.7	2.8	0.9
유해사례 (접종 후 1~15일간)	이 백신 투여군 (N=6,160) %	위약군 (N=4,064) %	
전신 발열	10.1	8.4	

* 백신 투여군에서 0.1%이상이고 위약 투여군에 비해 높은 발현율을 나타낸 백신-관련 유해사례

전반적으로 이 백신을 투여받은 피험자의 94.4%에서 경증 내지 중증도의 주사부위 유해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매우 드물게 기관지경련이 중대한 유해사례로 보고되었다. 위약대조 시험에서 이 백신을 6형 간격 재조합백신과 동시에 투여하였을 때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병용투여시의 유해사례 발현율은 이 백신을 단독 투여했을 때와 유사하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를 4년간 추적조사하여, 발생한 새로운 의학 상태(new medical conditions)를 평가하였다. 백신과 위약을 투여받은 피험자에서, 전신성 면역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태로 진단된 피험자의 수는 표 2와 같다.

it was easier to cope with than I imagined. Thank you.

Dear Doctor,

After hearing I had cancer, the idea of chemotherapy was really scary. However, it was easier to cope with than I imagined.

탁소텔주(도세탁셀)

전문의약품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이 약 분액 1ml(중 구성분 도세탁셀(별기) 40mg, 용제 폴리크리에티드800(DF) 1.0ml) 이 약 용액 1ml 중 용제 에탄올 127.4mg, 주시용수 1ml **<효능효과>** • **유방암**: 독소루비신과 병용하여 국소적으로 진행된 또는 전이된 유방암의 1차 치료,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발현(HER2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로 받은 경향이 없는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 이전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암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카테시타빈과 병용하여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암 또는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독소루비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하여 수술가능한 림프절 양성 유방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 **비소세포 폐암**: 백금화학요법제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을 포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세포폐암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전립선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여 인드라네 비외전성호르몬분비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 • **난소암**: 카보플라틴과 병용하는 1차요법제로서 진행된 또는 전이된 상피성 난소암 • **두** • **경부암**: 진행성 두 • 경부암 및 재발된 두 • 경부암 • **위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재발성 위암 • **식도암**: 진행성 또는 재발성 식도 관腔내암 (용법용량) • **유방암**: 유방암에 대한 일차적 요법에서 독소루비신(50 mg/m²)과 병용시 도세탁셀 75 mg/m²을 투여한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도세탁셀 100 mg/m²를 매 3주마다 60분에 걸쳐 점적경주한다. 트라스투주맙 첫 투여 다음날 도세탁셀 투여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전 투여한 트라스투주맙의 내약성이 좋았다면 트라스투주맙 투여 직후 도세탁셀 투여를 시작할 수도 있다. • 트라스투주맙은 체중 kg 당 4mg을 90분에 걸쳐 점적 경주한 후 다음 주부터는 매주 체중 kg 당 2mg을 투여한다(트라스투주맙 제품의 용법용량 참조)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유방암에서는 도세탁셀 75~100 mg/m²을 매 3주마다 1시간 동안 정맥 투여한다. 카테시타빈과 병용하여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암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3주마다 도세탁셀을 75 mg/m² 투여하면서 카테시타빈을 2주간 1일 2회, 1회 1250 mg/m² 투여하고(식후 30분 이내) 1주간 휴약하는 것(3주를 주기로 함)이 권장된다. 카테시타빈 용량은 카테시타빈의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여 체표면적에 따라 결정한다. 독소루비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와 병용하여 림프절 양성, 수술가능한 유방암환자에서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매 3주마다 독소루비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 투여 1시간 후 도세탁셀 75 mg/m²를 6주기 투여한다. 결핵학적 독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으로 G-CSF를 투여할 수 있다 (용량조절항 참조). • **비소세포 폐암**: 도세탁셀 75~100 mg/m²을 매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 주사한다. 백금 유도제와 복합화학요법으로 치료시 최대 75 mg/m²으로 정맥 투여한다. • **전립선암**: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시 도세탁셀 75 mg/m²을 매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주사한다. 프레드니솔론은 1일 2회, 1회 5mg을 지속적으로 경구투여한다. • **난소암**: 진행성 또는 전이된 상피성 난소암에 대한 일차적 요법으로는 카보플라틴과 병용하여 3주마다 도세탁셀 75 mg/m² 1시간동안 정맥 주사 후 즉시 카보플라틴 AUC 60 mg/ml·min 을 30~60분간 정맥주사한다. • **두** • **경부암**: 상용량은 성인에게 1회 도세탁셀 60 mg/m² 1시간 이상 3~4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1회 최고용량은 도세탁셀 70 mg/m²이다. • **위암**: 상용량은 도세탁셀 75 mg/m² 매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 주사한다. • **식도암**: 상용량은 성인에게 1회 도세탁셀 70 mg/m²을 1시간 이상 3~4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금지>** 1) 이 약 및 폴리크리에티드 800에 대해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호중구가 1500 /mm³ 이하인 환자 3) 일부 및 수유부 4)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 5) 병용투여시, 병용약물에 금기인 환자(중증 신기능장애 환자, 파라플라틴, 백금화합물, 만니톨에 관련된 환자 등) 6) 감염증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 7) 감염성 발열이 의심되는 환자 **<신중투여>** 1) 골수억제가 있는 환자 2) 간기능장애 환자 3) 신기능장애 환자 4) 간질성 폐렴 또는 폐섬유증이 있는 환자 5) 부종이 있는 환자 6)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 기타 이상반응은 제품의 사용설명서 참조

※ 보다 상세한 제품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5번지 T. 02-527-5500 F. 02-527-5559



Time Life Confidence

제넥솔은 희망입니다!



고순도 파클리탁셀 - 제넥솔

위암
적응증
추가

- ① 제넥솔주는 국산 1호 파클리탁셀 제제입니다.
- ② 식물조직배양법으로 생산되어 순도가 높고(>99.0%), 품질이 균일합니다.
- ③ 파클리탁셀에 대하여 FDA의 DMF(Drug Master File)를 승인받아 기존 파클리탁셀 제제와 동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승인번호 14338)
- ④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및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2상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내었습니다.^{1,2)}
- ⑤ 위암에도 처방할 수 있어 오리지널 제제와 적응증이 동일합니다.

제넥솔 - 주

GENEXOL - inj (paclitaxel)

1) Jung et. al.,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33(6) : 451~457, 2001 2) Lee et. al.,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35(1) : 30~34, 2003 • EDI code : 30mg/5ml - A63200141, 100mg/16.7ml - A63200142

입맛 없이 살맛 나십니까?

오피니언

동아일보 제26430호 ④

암 환자 '삶의 질'도 생각할 때다

opinion

'웰빙'이라는 말은 입과 같은 볼치 병을 앓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용어인 것 같다. 말기 암 환자의 초췌한 모습은 그가 건강할 때를 기억하는 친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암 환자의 이런 비참한 모습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새로운 암 치료법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 의학의 꾸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암은 당연히 아픈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통증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통증 관리를 살펴보자. 암 환자는 말기에 이르면 안락사를 희망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진

통제 투여로 통증 관리를 비교적 잘하지만 한국의 경우 '진통성 마약'의 사용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식욕 부진 문제도 마찬가지다. 암 환자는 통증 외에 식욕 부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 결과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미 갖고 있는 질병의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암 환자는 암 자체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매개체 때문에 식욕 부진과 불완전 영양 상태에 빠지게 되며, 몸 안에서 자라는 암세포에 정상세포와 조직의 영양분까지 빼앗겨 심한 영양실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의 63%가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소화와 관련이 깊은 위암과 췌장암 환자는 무려

83%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20% 이상은 사망 원인이 영양 부족인 정도로 암 환자의 영양 관리 는 매우 중요하다.

암 환자는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변하며 자주 구토를 하고 메스꺼움을 느껴 음식을 먹기 어렵다. 구토나 전신피로 등의 부작용이 있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더 힘들다.

이런 환자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종합 비경구(非經口) 영양수액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음식물을 방금 씹어서 삼킨 듯한 반유동체 상태의 영양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소화기 관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식욕을 증진하는 약물도 개발돼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제제가 대표적이다. 식욕을 촉진함으로써 체중과 근조직

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 이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전이성, 재발성 암 환자에게까지 확대됐지만 암 환자 중 4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로 고생하는 암 환자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전후근
미국 뉴욕대 의대 교수
종양학

SOC투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1~3% 줄어줄 전망이다. 2003년을 정점으로 이후 몇 년간 감소세가 지속될 분위기다. 이 러한 SOC 예산 축소는 경제 국가의 성장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SOC 시설들은 학원에서 영유아 보육 시설에 활용도가 높으며 교육 부문에 투자할 경우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

다. 정부가 완공된 SOC 시설을 기초로 자선유동과공급(ARS)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누구나 난역을 표명하는 국제 발행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더욱 단순한 방법은 완공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자산 유동화나 PFI 모두 넓은 운영 범위를 가진다. 운영권은 공공이



Give a better body, life and spirit to your patients!

Improves the Sense of Well-Being in Cachectic Patients

- 현저한 체중감소를 일으키는 anorexia, cachexia의 treatment
- weight loss에 있어 입증된 효과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 환자의 삶의 질 개선
- Well-tolerated safety profile

convenient and economical
megestrol acetate therapy

oral suspension
Megace
(megestrol acetate)

*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상담실(Tel : 080-708-80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